더불어 민주당

젊은 의정부! 일하는 시장!

직진

1 정진호

의정부시장선거 예비후보 정진호 정책공약집

BRAINPARK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자공약집 | **의정부시장** 선거

젊은 의정부! 일하는 시장!

직진 1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정진호

정책공약집

BRAINPARK
GLOBAL&LOCAL

차례

정진호의 길 6
정진호 공약집을 발간하며 7
언론이 본 정진호 13

1. 정진호의 11대 직진 공약 ····· 16
    1) 제왕적 시장 사망선고 ····· 17
    2) 의정부 시민, '10급 공무원' 임명 ····· 19
    3) 역세권 청년 만원주택 5백호 공급 ····· 21
    4) 시민이 세우고 집행하는 시민주권예산제 도입 ····· 23
    5) 의정부역과 행복로 연결 시민의 광장 조성 ····· 25
    6) 시내버스 무료와 광역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27
    7) 시민건강지킴이 '1인 1스포츠 보장제' 시행 ····· 29
    8) 시민이 창작자가 되는 진짜 문화도시 구현 ····· 31
    9)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AI 민원행정 도입 ····· 32
    10) 의정부 '온 동네 발전소' 운영 ····· 34
    11) 온 동네 영어교육 캠퍼스, 의정부 실현 ····· 35
2. 6대 분야별 32대 주요공약 ····· 37
    가. 산업경제 ····· 38
        1) 피지컬 AI 기반 의료산업 육성 ····· 38
        2) 산업 기반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 40
        3) 제일시장 야간 팝업 야시장 운영 ····· 42
        4) 의정부시 좋은 일자리 책임제 시범 ····· 44
        5) 시민공돈화를 통한 UBC 개발 방향 결정 ····· 46
        6) 고향사랑기부금 40억 달성 ····· 48
    나. 참여·자치 ····· 50
        1) 복수의 주민자치회 허용 ····· 50

2) 민주시민 & 헌법 교육 지원 ····· 53
3) 의정부 민주주의 정치축제 운영 ····· 55
4) 비밀 없는 완전공개 시정 구현 ····· 57
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돈 지원 ····· 59
6) 자존감 높은 선배시민 육성 ····· 61
다. 교육·복지 ····· 63
1) 통합돌봄실무지원단 신설 ····· 63
2) 이주민·난민 지원체계 고도화 ····· 65
3) AI를 이기는 시민 양성 ····· 67
4) 인권보호형 경기 공공요양마은 조성 ····· 69
5) 맞춤급식·건강식당 인증제 도입 ····· 71
라. 도시·교통 ····· 73
1) 의정부 경전철 24시간 운행 ····· 73
2) 도시공간 민간전문가 자문 활성화 ····· 75
3) 시민이 결정하는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 77
4) 물이 스며드는 스펀지도시 구현 ····· 79
5) 예술도로 지역듹화발전 듹구 지정 ····· 81
마. 문화·관광 ····· 83
1) 의정부 축제주간 신설·통합 운영 ····· 83
2) 예술인 지원사업 개선 ····· 85
3) 경기북부 스포츠마케팅 거점 조성 ····· 87
4) 스포츠·문화·치유 융합관광 개발 ····· 89
5) 학교시설 개방은 통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 91
바. 환경·안전 ····· 93
1) 플러스에너지도시 기본계획 실천 ····· 93
2) 의정부 생태하천 리빙로드 조성 ····· 95
3) 기후 취약계층 무상전기 제공 ····· 97
4) 어르신 폭염·한파 안심돌봄 ····· 99
5) 사업장 산재예방 역댱 강화 ····· 102

3. 4개 권역별 지역 공약 ····· 104
가. 송산권 : 미래산업과 육아의 중심 ····· 105
1) 송산1동 : “생활행정 파트너, 청년의 활력” ····· 105
2) 송산2동 : “내 집 앞이 정원, 쉼이 있는 일상” ····· 105
3) 송산3동 : “아이 키우기 좋은 1등 교육” ····· 106
4) 고산동 : “교육 불평등 해소, 연결된 신도시” ····· 106
5) 자금동 : “의료와 생태가 만나는 웰니스 거점“ ····· 107
나. 흥선권 :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심 ····· 108
1) 의정부1동 : “랜드마크로 의정부의 활력은” ····· 108
2) 의정부2동 :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주권으로” ····· 108
3) 가능동 : “디자인과 교육으로 깨어나는 가능성“ ····· 109
4) 흥선동 : “세대 공감, 함께 상생하는 마을” ····· 109
5) 녹양동 : “활력 넘치는 시민 레포츠 타운” ····· 110
다. 호원권 : 관문도시와 생태의 조화 ····· 111
1) 호원1동 : “에너지 자립의 거점” ····· 111
2) 호원2동 : “수중산책로, 웰빙 라이프” ····· 111
3) 장암동 : “생태 자산으로 여는 고품격 주거” ····· 112
라. 신곡권 : 행정 중심의 스마트시티 ····· 113
1) 신곡1동 : “음악과 감성이 흐르는 신곡” ····· 113
2) 신곡2동 : “데이터로 말하는 열린 시정” ····· 113

[정진호의 길]

(현)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위원회 청년위원장
(전) 국회의원 비서
(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정진호의 저서
『다 같이 외칩시다, 내돈내놔!』

• 정진호의 혁신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 개발자

[정진호 공약집을 발간하며]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 정진호입니다. 의정부는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위대한 시민과 함께, 멈춰있던 의정부를 앞으로 직진시키기 위해,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저의 비전과 정책을 설계한 공약집을 내 놓습니다.

이번 선거는 의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대로 정체되고 후진할 것이냐 아니면 확 바꿔 직진할 것이냐 그 선택이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지난 4년 의정부는 방향을 잃고 정체와 후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의정부의 재정자주도는 4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 꼴등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32억원이나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3년도에면 특별조정교부금 125억9천4백만원 중 32억 7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시군 중 꼴지인데, 주는 돈 남긴 실적은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의정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팽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4년 연속 의정부를 떠나고 있습니다. 재정도, 교통도, 복지도, 교육도, 일자리도 하나같이 과거에 머물고 후퇴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외면하면 이대로 멈춥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

다. 이 위기를 변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심판해야 변화합니다. 이번 선거는 의정부를 후퇴시킨 시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시민들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약속에는 성실하지 않았으며, 일에는 무능했고 책임에서는 늘 한 발짝 물러섰던 과거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의정부의 지난 4년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었으며 설득 대신 독선이 반복됐습니다. 권위와 독선만 남은 낡은 리더십으로 시민과 의회 위에 군림했습니다.

'돈이 없다'며 복지를 없애고 지원을 중단하며 시민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어땠습니까? 시민혈세 1,293억 쌓아두고 634억 원은 불법적으로 방치했습니다. 바로 저 정진호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성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알뜰살림도 교통혁신도 재난안전도 좋은 교육환경도 질 높은 일자리도, 모두 선거용 구호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는 꼴등도시로 전락했고 시민들은 의정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장들이 만든 의정부의 민낯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바꿔야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 바꿨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의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정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 정진호가 멈춰 선 의정부를 다시 앞으로 직진시키겠습니다.

진짜 의정부를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는 진짜 젊은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참여도시" "미래로 곧장 달리는 진짜 직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는 진짜 젊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를 멈춰 세운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젊은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제왕적 시장과 결별하고 일 잘하는 시장 되겠습니다. 행정이 무능해지는 이유는 잘못된 지시에 누구도 문제제기 못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서 의정부시 레드팀 신설하겠습니다. 부시장 추천권은 시의회로 넘기고 비서실은 정책실로 전환해 의전 중심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10급 공무원 도입으로 시민의 삶 촘촘히 돌보겠습니다. 반장제도 폐지로 시민 가까이서 작동하는 생활행정 네트워크가 사라졌습니다. 퇴직자와 경력보유여성, 건강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3,916개 반에 '10급 공무원'을 임명해서 시민의 삶에 밀착해 안부를 묻고 행정과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문제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에 청년 만원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에만 71억원을 썼지만 청년에게 크게 와 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와 교통비입니다. 역세권 만원주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입이 아닌 전세 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하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청년이 머물고 모여 도시가 살아납니다.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이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참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진 찍기 위한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시

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시민주권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몇 개 사업에 의견내는 형식적인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그 사용처를 시민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주권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역 광장과 행복로 광장을 연결해 제일시장과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시민의 공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모이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논의가 오프라인 공론으로 이어지는 시민참여의 중심 공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하겠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의정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든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불편했던 버스 노선은 지금부터 시민들이 직접 계획해 결정하고 행정은 이를 실행하겠습니다.

넷째, 의정부시민 1인 1 스포츠를 보장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뛰고 응원할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의정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시민 1인 1생활 스포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로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참여로 완성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진짜 문화도시는 단발성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 만들고 즐기는 도시입니다.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축제 사업을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묶어 시민 누구나 창작자이자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서 시작해 창작과 무대로 이어지고, 다시 참여로 돌아오는 1년 365일 작동하는 진짜 문화도시 만들겠습니다.

“미래로 곧장 달리는 진짜 직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행정은 늘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이젠 의정부가 시대 흐름을 먼저 읽고 선도하겠습니다.

첫째, 알아서 처리해주는 AI 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아날로그 행정은 모두가 불편합니다.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시청 여러 번 오가는 시대 끝내야 합니다. 복잡한 시청 홈페이지 검색창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전화 한 통이면 AI가 담당부서 연결해 주고 서류 처리까지 해주는 빠르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의정부 전체를 하나의 발전소로 만드는 ‘온 동네 발전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공공시설·생활공간 전반에 태양광을 비롯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도시형 에너지 생산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정부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의료용 피지컬 AI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의정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영어교육! 의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갖춘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곧 경쟁력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의정부에 살기만 하면 누구나 제대로 영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는 원래 영어가 거리와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들렸던 도시입니다. 일하는 세대에게는 경쟁력을, 아이 키우는 세대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은퇴 이후의 세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배움으로 모든 세대가 미래로 달려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방향을 현실로 만들 방법과 의지가 있

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직진하는 정진호에게 방향을 알려줄 유일한 네비게이션은 의정부 시민입니다. 그 네비게이션을 따라 망설임 없이 직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잠자고 있던 1,293억 원을 찾아냈고, 불법 예비비 634억 원을 시민 품으로 되찾아왔습니다. 사라졌던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을 되살렸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크든 작든 끝까지 싸웠고, 끝끝내 해결해냈습니다. 과거의 시장들은 하나 같이 시민 위에 서서 군림했습니다. 시민에게 지시하고 그저 따르라고만 했습니다.

경기도 단체장 후보 104명 중 40세 미만 딱 1명, 정진호 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더 빨리 젊어지고 있습니다. 32세 핀란드 총리도 나오고, 35세 뉴욕시장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연소 단체장은 31년 전 남해군수로 당선된 35세 김두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AI의 속도는 긴 결재라인과 느린 리더십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고, 기술을 이해하고, 시민의 생활에 기술을 연결할 빠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젊음'은 선거 때 마다 바람잡이로 등장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젊음은 빚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니, 오로지 시민편에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미군 공여지에 높은 빌딩을 원하고, 땅부자도 땅값을 올릴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공원을 원한다면, 젊음은 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땅부자와 기업에 연이 많은 오래된 리더십은 공원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관성대로 가고 노회한 시장을 아는 사람의

이해대로 움직인다면, 시민은 소외됩니다. 시장을 아는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도시를 만들 사람, 젊은 정진호가 있습니다.

지역정치가 점점 늙어가도 있습니다. 낡은 관행이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시대에 프린트된 인쇄물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돈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돈없다고 복지 깍는 행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대교체는 사람을 바꾸고 도시 작동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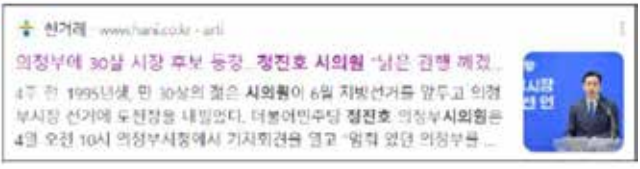
30세 정진호, 직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정치를 살리고 늙은 의정부를 깨우겠습니다. 역동적인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관의 최연소 단체장 기록 31년 만에 정진호가 반드시 깨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진호, 시민들 곁에서 묻고, 듣고, 토론해서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을 만들었듯이,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했듯이, 시민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호원동 거리를 함께 설계했듯이, 시민이 의정부의 미래를 주도하는 진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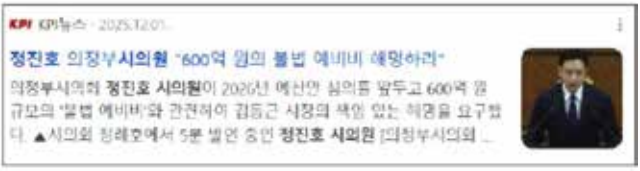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이제 진짜 의정부를 만들 시간입니다. 이 공약집에는 정진호의 직진공약, 즉 가장 먼저 실천할 공약 11개와 6개 분야별 32개 주요공약, 그비로 이 분야별 공약을 권역별 동별로 배치한 4개 권역별 지역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진호와 함께 의정부를 새로 설계해 주십시오. 낡은 관행을 깨는 진짜 젊은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참여 도시, 미래로 곧장 달리는 진짜 직진 도시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정진호 드림

[언론이 본 정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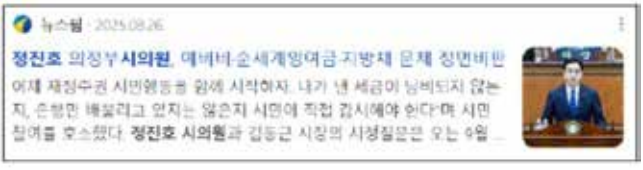


한겨레신문 **26. 02. 04**
만 30살 젊은 시의원 의정부 시장 선거에 도전장.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시장 교체 필요". 스낳은 관행을 깨는 젊은 도시 스시민이 주인 되는 장여 도시 스이래로 공장 나아가는 직접 도시 등 세 가지 도시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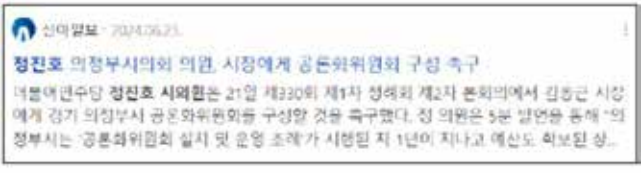


KPI뉴스 25. 12. 01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검등근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집시장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면 예비비를 슬그머니 적립금과 사업비로 돌렸다" 며 "재정 무능을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 고 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운용 가능" 시 재정 계획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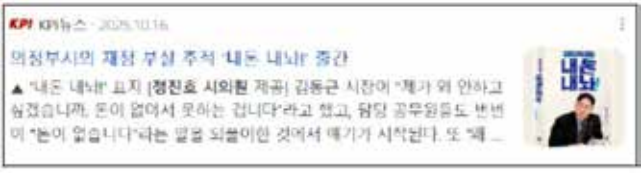
일요서울 **25. 11. 07**
시의회 5분 발언 "시금고 계약 내용과 이자율 등을 전부 공개하지는 요구에 대통령이 공감하고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응답". 시금고 지정 경쟁 서두르는 의정부 재정 압박 강하게 비판. 시 행사에 현금성 후원금 지원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 살지 않도록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뉴스원 25. 08. 26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시 재정운용의 총체적 문제 지적, 시장 거짓말 멈추고 시민 앞에 직접 사과 촉구. "행세 허투루 쓰지 말라는 요구에 무슨 욕국과 거짓 있나? 여섯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 요구. 불법 예비비 597억원, 순세계잉여금 1,293억원의 인용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시 재정당국 비판.



신아일보 24. 06. 23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공론화위원회 조속 설치 운영 촉구.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예산도 확보됐으나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고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 이라고 질타. "시민참여, 민관협치라는 말을 미사여구로만 사용하지 말라" 며 질타.



KPI뉴스 25. 10. 16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가 쓰고 남은 예산이 있는데 왜 빚을 낸 것인지 추적한 '내돈 내놔' 책 출간. 매년 수백억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데 지방채 발행, 세금으로 이자를 내는 비정상 지적. 출판기념회에서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재정을 감독할 때 시민자치가 비로소 완성된다" 며 참여 호소 예정.

1
정진호의 11대 직진공약

1) 제왕적 시장 사망선고

지방자치는 한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제도의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의정부 시정은 더 이상 '시장 1인 중심 행정'이 아니라, 견제와 협력, 시민 참여가 제도화된 협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장 권한을 스스로 분산시키고, 제왕적 시장 구조에 사망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행정이 무능해지는 이유는 잘못된 지시에 누구도 반대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서인 의정부 시 레드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시장 추천권은 시의회로 넘기고 비서실은 정책실로 전환해 '의전'은 왕창 줄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3번이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제왕적 시장 구조를 퇴출하는 것은 국정과제와 민주당 강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회 기반 부시장 임명제 도입
- 부시장 후보 추천 시 의회 참여 보장
- 인사청문·동의 절차 제도화
- 협치 중심의 부시장 권한 재설계
- 경기도와 인사교류 방식 재협의

행정-의회 상설 협치기구 설치
- 부시장 주재 협치정책회의 정례화
- 상임위원장·국장급 참여 구조 구축
- 대형사업·갈등사안 사전 조율
-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회 의견 반영

비서실 폐지 후 정책실 전환
- 의전 중심 조직 전면 개편
- 정책기획·조정 기능 중심 조직 재편
- 외부 전문가 공개영입 확대
- 성과 중심 정책관리 체계 구축

분야별 정책수석 도입

- 재정수석 : 세입·세출·지방채·기금 총괄
- 협치수석 : 의회·정부·시민사회 조정
- 도시수석 : 도시계획·교통·개발 전략 총괄
- 분야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 통제 장치 강화
- 시민주권예산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주민투표제 도입
- 시민참여 거버넌스 기구에 정책결정권 일부 이양
- 정책 정보 전면 공개

인사·공기업·감사 개혁
- 주요 인사 공개검증 시스템 도입
- 공기업 사장 임명 시 의회 동의제 추진
-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 감사결과 전면 시민 공개 의무화

▪ 이행시기 : 2026년~2030년
▪ 사업예산 : 약 6억 8천만원(기존 예산)
(2025년 기준 팀 단위 인건비 약 3억 4천 만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레드팀 신설(시청 팀 단위 총원 6명)
정책실 전환(시청 팀 단위 총원 6명)
시민 정책참여율 30% 달성
시정 신뢰도 20% 향상

2) 의정부 시민, ‘10급 공무원’ 임명

통·반장 제도 폐지 이후 의정부 행정에는 ‘미시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생활불편 제보, 취약가구 발견, 동네 안전·환경 점검처럼 가까이서 촘촘히 작동하던 생활행정의 실핏줄이 약해졌고, 그 공백은 특히 독거노인·복지사각지대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행정은 점점 거시화되는데 시민은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말단과 시민을 연결하는 시민주도형 생활행정 연결조직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경력보유 여성, 건강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의정부의 710통, 3,916개 반 단위 생활권을 기반으로, 각 반(또는 2~3개 반)에 1명의 ‘생활행정 파트너(가칭 시민 10급 공무원)’를 위촉해 생활민원·돌봄·안전을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10급 공무원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자율적 생활행정 플랫폼이며, 동시에 퇴직자·노년층·경력단절자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가 있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77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정진호가 10급 공무원제를 만들어 강령과 국정과제 실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행정지원팀 설치 및 시민 10급 공무원 위촉 운영
- 각 동에 ‘생활행정지원팀’ 설치(전담부서 지정)
- 710통, 3,916개 반 생활권을 기반으로 위촉체계 설계
- 1개 반 1명 원칙 + 여건에 따라 2~3개 반당 1명 탄력 운영
- 동 단위 ‘시민공무원협의회’ 운영
- 시장 월례간담회로 현장 보고체계 구축

주요 역할 표준화
- 주민 생활민원·생활불편 사항 상시 제보 및 전달
- 독거노인·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복지기관 연계
- 시설·환경·안전 분야 정기 점검 리포팅(위험요소 조기 발견)

• 응급상황 대응 보조(초기 확인→연락망 가동→기관 연계)
• 주민 의견 수렴 및 동 단위 소통 창구 역할
• 지역 행사·환경정화·생활방역 등 행정협력 활동 참여

선발·교육·평가 기반 운영
• 공공교육(기본교육+현장훈련) 수료자 중 선발
• 지역활동 경험자·봉사이력자·퇴직공무원·노년층 우선 선발
• 생활행정 기본교육(시정 이해, 개인정보, 민원 윤리) 의무화
• 커뮤니티 소통훈련(갈등중재, 취약가구 응대, 안전매뉴얼) 제공
• 활동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재위촉(무임승차 방지)
• 우수활동자 인센티브(교육·포상·활동확대 기회) 부여

모바일 기반 '보고-처리-피드백' 체계화
•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보·자료 제출 표준화
• 사진·위치·체크리스트 기반 리포팅 도입(행정 처리속도 향상)
• 처리결과를 시민공무원에게 회신해 '피드백 루프' 구축
• 기존 민원시스템과 연계해 중복 입력·누락 최소화

단계별 시범 → 전면 확대
• 1단계(2026) : 1~2개 동 시범(150명 내외) 운영모델 확정
• 2단계(2027) : 5~7개 동 확대, 앱 연계·교육 체계 고도화
• 3단계(2028) : 전 동 확대(탄력배치 적용), 평가 후 제도 정착

▪ 예정위치 : 의정부시 전 동(1~2개 동 시범 후 단계 확대)
▪ 사업예산 : 100억 원
(법률상 반장 급여기준 94억원 + 인센티브 6억원)
▪ 이행기간 : 2027~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고령친화일자리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시범 1~2개 동 150명 내외 운영
2027년 5~7개 동 확대
2028년 전 동 확대
생활민원·불편사항 제보 처리속도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연 20% 증가

3) 역세권 청년 만원주택 5백호 공급

의정부의 청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 인구는 2021년 124,355명에서 2024년 116,566명으로 감소했고, 순유출률은 △0.29%에서 △2.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핵심 문제인 '주거'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45.7%)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세권에 청년 만원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에만 71억원을 썼지만 청년에게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매입이 아닌 전세 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청년이 머물고 의정부가 살아납니다. 청년이 떠나는 의정부를 청년이 돌아오는 의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 강화"를 규정하고 있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는 89번에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진호가 의정부에서 청년 만원주택 보급을 통해 실천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만원주택 500호 단계적 공급
- 만 19~39세 생산가능 청년 대상(취업·창업 활동자 중심)
- 7일 1만원(월 4만원 수준) 임대료 구조
- 매입이 아닌 전세임대 중심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시가 임차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전세 방식

도심 철도역 500m 이내 소형주택(전용 23~33㎡) 확보
- 경전철·전철역 인근 오피스텔·소형아파트 활용
- 미활용 공실주택 리모델링 후 공급 병행
- 서울·의정부 출퇴근 최적 입지 중심 공급

기존 전세임대 제도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활용

- LH·경기도시공사 협력으로 안정적 주택 확보
- 인천 '천원주택', 고양 청년임대 사례 벤치마킹
- 임대료 차액 시 보전 방식 도입

청년 정주관리 플랫폼 구축
- 입주자 취업·창업·소비 데이터 연계 분석
- 1년 이상 거주자 재임대 연장 인센티브 제공
- 지역 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소비·세입 기여도 관리

지역 세입 기반 강화 전략
- 주민세·재산세 등 순증 효과 기대
- 청년 소비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 역세권 공실 해소 및 생활권 재생
- 청년 순유출률 3년 내 '0% 이하' 개선 목표

- 예정위치 : 의정부 주요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사업예산 : 500억원(역세권 1.5룸 신축 기준 약 1억원)
- 이행기간 : 2026~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지방채
  (전세임대 방식, 향후 전액 원금상환)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LH·경기도시공사 협력사업 연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역세권 만원청년주택 1.5룸 500채 공급
  2030 순유출률 △2.8% → 3년 내 △0% 이하
  입주자 1년 전입 유지율 85%, 2년 70% 이상
  의정부 내 직장·창업 비율 50% 이상
  청년 출퇴근 만족도 80% 이상 목표

4) 시민이 세우고 집행하는 시민주권예산제 도입

예산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의정부의 재정 위기는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불투명·비효율·불신의 문제입니다.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예산 운영에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예산의 일부 반영 수준을 넘어, 전체 예산에 시민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시민주권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몇 개 사업에 의견내는 형식적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사용처를 시민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가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면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재정민주주의 구축'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7번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입니다. 정진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시민주권예산제를 철저히 실천해서 민주당의 강령을 실천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시민주권예산 5대 구조 확립
- 권역별 시민결산제 도입
- 셀프평가식 결산 탈피 및 외부 시민평가 반영
- 인포그래픽·시각자료 기반 예산정보 공개
- 예산 편성 전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의무화
- 집행률·성과 중심 예산 재배치 시스템 구축

시민참여 결산토론회 정례화
- 권역별 생활밀착형 예산토론회 연 2회 개최
- 행정업무보고를 '시민-예산 대화' 구조로 전환
- 사전 자료 배포 및 숙의형 토론 운영
- 토론 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 의무화

의정부 시민재정전략회의 설치
- 선출직·시민·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략회의 구성

- 시민결산 결과를 장기 정책 방향과 연계
- 국·도비 확보 전략 통합 논의
- 전략사업·산업투자·복지지출 우선순위 공개 조정

디지털 시민예산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예산 질의응답 시스템 운영
- 예산·집행률·잔액·사업성과 실시간 공개
- 시민 사업제안·평가·투표 통합 플랫폼 운영

예산편성 5대 원칙 시민협정 체결
- 약자 우선, 시민 우선, 시민 주도, 지속가능성, 즉시 집행 원칙
- 시민단체·주민자치회·시의회와 예산협약 체결
- 선심성·민원성 예산의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 이행시기 : 2026년(당선 직후 즉시 이행 가능)
▪ 사업예산 : 5억 원(기존 예산)
▪ 재원조달 : 시비(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 5억원 활용)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의정부 시민재정시스템' 고도화
시민 예산참여율 30% 달성
결산 공개 이해도 80% 이상
예산 집행률 95% 이상
시민 신뢰도 20% 향상

5) 의정부역과 행복로 연결 시민의 광장 조성

의정부는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이지만,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도시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상징 공간과 광장이 없습니다. 시민 주권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모이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광장이 있어야 합니다.

GTX-C 시대를 앞두고 의정부역 일대를 단순 환승 공간이 아닌 문화·교통·상권이 결합된 시민 중심 랜드마크 광장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의정부역 광장과 행복로 광장을 연결해 제일시장과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시민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베드타운을 넘어, 머무는 도시·자랑하는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산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국가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위해 정진호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참여 설계 체계 구축
- 시민디자인위원회 구성
- 건축가·도시계획가·예술가 협업 설계
- 워크숍·공론화위원회 통한 의견 반영
- 단계별 시범구간 조성 후 확대

공중그린 데크 아치 조성
- 의정부역 광장–이성계 광장 입체 연결
- 단순 보행통로가 아닌 공중정원형 녹지 데크
- 도시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 아치 구조
- 보행 단절 해소 및 입체 보행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결합형 시민광장 조성
- 공연·프리마켓·전시·토론 가능한 다기능 광장
- 예술가·조각가 협업 공공미술 설치
- 이동형 스테이지·임시 스탠드 설치 가능 구조

•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적용

스마트 교통·환경 시스템 구축
• 하부 시민로 첨단 환기·조명 시스템 개선
• 미세먼지 저감 및 스마트 안전주행 체계 도입
• 평일 주차·주말 공연 가능한 복합 공간 조성
• 교통·문화 기능을 통합한 도시형 복합광장

디지털·참여형 광장 운영
• 아치형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 실시간 교통·행사·공공정보 제공
• 시민 메시지·미디어아트 전시 공간 운영
• 시민광장 운영위원회 구성

▪ 이행시기 : 2027~2030년
▪ 사업예산 : 20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
국토부 도시재생·생활SOC 공모사업
GTX-C 연계 개발사업 협력재원 활용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약 30만㎡ 시민의광장 조성
연간 외부 방문객 300만 명 유치
상권 매출 100% 증가
보행 네트워크 단절 100% 해소
시민 만족도 85% 이상 달성

6) 시내버스 무료와 광역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의정부 시민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배차간격'과 '버스 확대'입니다. 경전철 연장 논의 역시 반복되어 왔지만, 재정 부담과 효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재정·효과 중심의 교통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직영제 도입과 무료시내교통, 서울-의정부 단일요금제를 통해 교통을 '요금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정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든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불편했던 버스 노선은 지금부터 시민들이 직접 계획해 결정하고 행정은 이를 실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7번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진호가 의정부에서 시내버스 무료교통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버스 직영제 도입 검토 및 공영화 전환
- 준공영제·민영제 재정부담 구조 전면 분석
- 지자체 직영 운영의 비용·서비스 효율성 타당성 조사
- 노선·배차권한을 시가 직접 확보하는 체계 설계
- 단계적 공영제 전환 로드맵 수립

경전철 연장 재검증 및 교통체계 재설계
- 경전철 연장 B/C 재산정 및 재정영향 공개
- 버스 중심 교통체계 개편안과 병행 비교
- 시민 공개토론회 및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 대규모 토목 중심 정책에서 생활교통 중심 정책으로 전환

시내버스 무료교통 도입
- 버스공영제 기반 시민·관광객 무료교통 시행
-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 버스·택시·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청소년·청년 이동권 강화

서울-의정부 단일요금제 추진
- 의정부-서울 동일요금 체계 협의 추진
- 광역환승요금 구조 단순화
- 소득·거주지에 따른 이동격차 완화
- 경기교통공사·서울시와 협약 체결 추진

'마통터치' 연결 교통망 구축
- 마을-시내-광역 거점 실시간 연결체계 구축
- 지하철-버스-자전거-보행 통합 환승환경 개선
- 디지털 기반 실시간 배차·환승 정보 제공
- 생활권 중심 교통 네트워크 완성

▪ 이행시기 : 2026~2030년
▪ 사업예산 : 1400억 원(2025년 기준 공공관리제 70억 지출)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자
특별교부세, 지방교통기금, 운수사업 보조금
국토부 주차장·도로 확장 예산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배차간격 30% 단축
대중교통 이용률 20% 증가
교통비 부담 50% 이상 절감
청년·청소년 교통복지 100% 확대

7) 시민건강지킴이 '1인 1스포츠 보장제' 시행

의정부는 KB손해보험 배구단, 빙상장 등 우수한 스포츠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시 전략산업과 시민 건강 증진으로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산업·관광·보건·교육을 연결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의정부를 구단 창단과 공공체육 인프라 혁신을 통해 '스포츠 공공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이 구단의 주인이 되고, 체육시설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1인당 1개 스포츠 동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뛰고 응원할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의정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시민 1인 1스포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로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체육의 일상화를 통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06번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정진호가 의정부에서 민주당의 강령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경기장·빙상장·체육관 시민 사용시간 확대
- 비시즌 경기장 스포츠 체험공간 활용, 빙상장 야간 개방 확대
- 경기장 내 지역상권 홍보구역 운영

1인 1스포츠 바우처 지급
- 청소년·청년·노년층 대상 스포츠 바우처 지원
- 연 10~20만원 상당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 사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운동 추천 시스템 도입

1인 1생활체육 프로젝트 지원
- 동별 스포츠클럽 육성, 세대통합 리그 운영
- 직장인 야간 스포츠리그, 주민주도형 동호회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스포츠교실 운영
- 공공체육지도사 채용, 초·중·고 방과후 스포츠교실 운영
- 시니어·장애인 맞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여성·다문화 가족 특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선수-시민 건강코칭 플랫폼 구축
- 프로선수 참여 건강강좌, 온라인 운동 코칭 플랫폼 운영
- 오프라인 '원포인트 레슨' 프로그램, 학교 대상 건강컨설팅 제공

시민참여형 스포츠 구단 모델 구축
- 시민이 일정 지분 참여하는 '시민구단' 구조 도입
- 구단 운영 정보 투명 공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의무화
- 선수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례화

의정부 프로야구단·농구단 창단 추진
- 기업·시민 참여형 컨소시엄 방식 구단 설립
- 시민주주제 도입(소액주주 참여)
- 반환공여지 활용 야구장·복합경기장 조성
- 프로농구·실업농구단 유치 또는 창단 추진
-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의무화

스포츠 산업·관광 연계 전략
- 스포츠 전지훈련 도시 브랜드화, 전국·국제대회 유치
- 스포츠+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스포츠 굿즈·지역브랜드 상품화

반환공여지 활용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 e스포츠 경기장 검토
-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검토
-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설치

- 이행기간 : 2026~2030년
- 사업예산 : 17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체육진흥기금), 도비, 시비, 민간투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프로구단 2개 이상 창단·유치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
  시설개방 우수 학교 인센티브 지원 50억원

8) 시민이 창작자가 되는 진짜 문화도시 구현

의정부의 문화를 축제 몇 번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진짜 문화도시는 시민이 관객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무대에 서는 도시입니다.

지금 의정부의 문화·예술·축제 사업은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참여의 문턱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시민은 정보가 없어서 놓치고, 어떤 시민은 "내가 할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문화가 일상이 아니라 '가끔 있는 행사'로 남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사업을 하나의 도시 운영체계로 묶어, 배움→창작→발표→참여가 1년 365일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모든 시민이 창작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배우고, 동네에서 만들고, 동네에서 발표하고, 다시 다음 기획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문화는 예산이 아니라 도시의 습관이 됩니다. 의정부 전역이 무대가 되고, 시민의 삶이 콘텐츠가 되는 문화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다양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04번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를 의정부에서 정진호가 모범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 2026~2030년
- 사업예산 : 150억원
- 재원조달 : 국비·시비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예산 활용)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1시민 1창작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동별 신청자 접수 1시민 1창작지 1,000명 육성

9)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AI 민원행정 도입

지금 의정부시 대표 홈페이지는 2017년 전면 개편 이후 9년이 경과했습니다. 시스템은 노후화되었고, 기존 제조사의 공식 지원도 종료되어 보안 취약성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나열형 구조'입니다. 시민은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메뉴를 오가야 하고, 정확한 용어를 모르면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디지털로 전환되었지만, 시민 경험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입니다. 복지·교통·관광·민원·세금·지원사업 정보가 흩어져 있고,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 플랫폼을 혁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라, 의정부 전용 AI 플랫폼 'U-AI(Uijeongbu AI)', 즉 '내 손안의 시민 AI비서'를 도입하고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AI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행정을 찾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이해하는 행정, 시민이 질문하면 의도를 파악해 답을 주는 지능형 AI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AI 시대에 아날로그 행정은 모두가 불편합니다.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시청 여러 번 오가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복잡한 시청 홈페이지에 문자 한 통 보내고 전화 한통 하면 AI가 담당부서 연결해주고 서류처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디지털 대전환 중심의 미래사회 변화 대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23번은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입니다.

정진호가 민주당의 강령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지능형 통합 플랫폼(U-AI) 전면 구축

- 2026년 예산 기반 즉시 시행
  - ✓ 전산개발비 5억 원(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미 편성
  - ✓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즉시 추진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 ✓ 행정·복지·교통·관광 데이터 통합
  - ✓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구조
- 지능형 AI 검색엔진 도입
  - ✓ 사용자 질문 의도 분석
  - ✓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
  - ✓ 민원·정책·행사·보조금 정보 원스톱 제공
- 새올행정포털 통합 로그인(SSO) 구현
  - ✓ 한 번 로그인으로 모든 민원 서비스 이용
  - ✓ 모바일·PC 동시 최적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 민간 데이터 확보
  - ✓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예산 8천6백만 원 활용
  - ✓ 카드 소비·유동인구·신용 데이터 확보
- 소상공인 지원 알고리즘 구축
  - ✓ 상권 분석 서비스 제공, 창업 입지 추천 기능 도입
- 맞춤형 복지 추천
  - ✓ 연령·소득·가구 특성 기반 자동 안내, 신청 누락 방지 기능 도입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2천2백만 원) 추진
  - ✓ AI 학습 데이터 정확도 확보

- 시행시기 : 2027년~2029년
- 사업예산 : 5억 원(기편성 예산 활용)
- 재원조달 : 시비(기획소통국 AI융합정보과)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24시간 AI 민원 응답 체계 구축
  민원 처리시간 30% 단축
  복지 수혜 누락률 20% 감소
  소상공인 상권 분석 이용자 1,000명 이상

10) 의정부 '온 동네 발전소' 운영

도시는 더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산·저장·순환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환공여지, 경전철 선로, 공공주차장, 공공건축물 등 에너지 전환 잠재력이 높은 의정부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진호가 집도 도로도 모두 전기를 만드는 의정부 '온 동네 발전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공공시설·생활공간에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모두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39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정진호가 민주당의 강령과 국정과제를 의정부에서 실천합니다.

공공자산 활용 대규모 태양광 확충
- 경전철 선로 상부 태양광 패널 설치
- 공영주차장·학교·체육시설 옥상 태양광 의무화
- 건축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 벽면·창호·기와형 컬러 태양광 도입

AI 스마트 플러스 에너지 청년주택 조성
- AI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Energy EMS) 도입
- 태양광+ESS 결합 자립형 청년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
- 공유지 활용 공공임대 청년주택 확대
- 청년주택 내 에너지 창업공간 결합

- 이행기간 : 2026~2030년
- 사업예산 : 약 178억원(가구당 주택 태양광 446만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개발 이익금+신규 건물 인허가 활용 민간투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4개 권역 각 2500가구, 총 10,000가구
  AI 스마트 플러스 에너지 청년주택 100가구(민자)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10개소

11) 온 동네 영어교육 캠퍼스, 의정부 실현

의정부는 미군이 주둔했던 도시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은 아직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더 이상 입시 과목이 아니라, 문화·경제·산업·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역량입니다.

영어를 학원에서만 배우는 도시가 아니라, 거리·공원·도서관·복지관·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생활형 영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의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생활 공간을 영어교육 캠퍼스로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에 살기만 하면 누구나 제대로 영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는 원래 영어가 거리와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들렸던 도시입니다. 일하는 세대에게는 경쟁력을 아이 키우는 세대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은퇴 이후의 세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배움으로 모든 세대가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전 생애 배움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이 있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진호가 강령과 국정과제를 의정부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생활 속 '영어노출 도시' 조성
- 학교·공원·복지관·경로당 등을 '생활영어존'으로 지정
- 벽면 영어표현·미니 체험부스·영어 보드게임 코너 설치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디지털 영어 표현 사이니지 운영
- 노래형 회화존·생활회화 QR 콘텐츠 배치

평생학습원·대학 연계 '영어시민대학' 운영
- 시민·청년 대상 무료 영어회화·문해력 강의 개설
- 초급 생활영어부터 시사·토론 영어까지 단계별 편성

- 대학·지역 교육기관과 협약 통한 강사진 확보
- 직장인 야간·주말 영어반 운영

영어강사 공공지원 프로그램 도입
- 학습공간 확보 시 시가 강사비 지원
- 영어강사 등록제 운영(대학생·퇴직교사·시민 인력풀 활용)
- 소규모 모임·작은도서관 중심 순환 강의 운영
- 외국인 주민 생활영어 봉사 연계 프로그램 검토

AI 기반 영어학습 보급
- 초등~노년층 대상 레벨별 영어학습 AI 앱 지원
- 앱 연동 온라인 코칭 시스템 운영
-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오프라인 병행교육 실시
- 시민 AI 영어교육 교재 자체 개발

영어문화축제 및 체험 확대
- 연 1회 'English Day' 및 시민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 영어 캠프·영화 상영·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군·다문화 커뮤니티 연계 영어체험 프로그램 추진
- 청소년·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이행시기 : 2026~2030년
- 사업예산 : 46억 원
  (권역별 5개 학교 지정을 통한 20곳 시범 운영)
- 재원조달 : 도비, 시비
  (2곳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약 4억 6천만원)
  교육청, 평생교육지원사업
  교육부·경기도 평생학습 공모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4개의 권역에 거점별 영어교육센터 설치
  생활영어존 100개 지정
  시민 영어 프로그램 참여율 30% 이상
  영어교육 사교육 의존도 20% 감소
  시민 체감 만족도 85% 달성

2
6대 분야별
32대 주요공약

가. 산업경제

1) 피지컬 AI 기반 의료산업 육성

의정부는 수도권 북부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3곳과 우수한 의료인력, GTX 개통으로 강화되는 접근성, 그리고 대규모 반환공여지라는 공간적 자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진료 중심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미래 성장산업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병원 중심의 소비형 의료도시를 넘어, 실증-연구-산업화-복지-관광을 잇는 의료산업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피지컬 AI(로봇·센서·지능형 기기 등 물리적 AI 기술)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정부를 대한민국 북부권 첨단 의료산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반환공여지 내 피지컬 AI 의료산업단지 조성
- 미군 반환공여지 타당성 검토 후 단계적 산업단지 개발
- 기업 입주공간·연구지원공간·실증공간·주거공간 복합 조성
- 의료기기·의료로봇·피지컬 AI 기업 유치 인센티브 마련
- 산·학·연·병 협력형 개방형 혁신단지 모델 구축

피지컬 AI 재활·돌봄 거점센터 설립
- 재활로봇·보행보조·근력회복·인지·치매케어 AI 실증
- 시니어·장애인·회복기 환자 대상 AI 기반 재활·돌봄 모델 운영
- 의료기기·로봇의 임상 실증(Test-bed) 수행
- 대학병원 3곳 컨소시엄형 통합 거점 구축
- 병원→거점센터→가정·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연계 모델 개발

의료용 로봇·기기 실증클러스터 조성
- 병원 물류 자동화(의약품·검체·세탁·급식 로봇) 실증
- 병동·요양시설 24시간 AI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수술·재활·돌봄 보조 로봇 임상 적용 모델 개발

- 의료 AI·로봇 스타트업, 부품기업, 연구소 집적 생태계 조성
- 대학·전문대 연계 학과·트랙 신설로 전문인력 양성

의료 AI 특화 기업유치 및 의료관광 연계
- 산업-진료-복지-관광 연계형 의료산업 생태계 구축
- 외국인 대상 시범진료 + 의료관광 결합 프로그램 개발
- 의료기기 인허가·임상 연계 패스트트랙 모델 추진
-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연구연계 인재양성

공공의료 기능 고도화 및 시민 체감형 실증
- AI 기반 병상·인력·이송 지원 시스템 실증
- 대학병원 간 협진·통합진료 플랫폼 구축
- 재활·회복·돌봄의 지역 내 완결 구조 확립
- 기술개발이 시민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 설계

추진체계 구축
- 병원-기업-지자체-대학 참여 의료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와 공동협약 추진
- 규제특례·실증특구 지정 추진
- 지역 대학·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신설 및 시비 지원

- 예정위치 :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일원
- 사업예산 : 1,230억 원
- 이행기간 : 2027~2032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경기도 첨단산업 육성사업 연계(예타 포함)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의료·피지컬 AI 기업 100개 유치
  고급 일자리 5,000개 창출
  연간 투자유치 3,000억 원 규모 달성
  시민 체감형 재활·돌봄 서비스 30% 확대

2) 산업 기반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의정부는 오랫동안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고,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권은 다시 침체되고 공실은 늘어났습니다. 망월로, 의정부역 일대, 원도심 골목상권은 소규모 상점과 청년 창업자, 생활문화공간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유입이 정체되고, 임대료 상승과 업종 왜곡이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사례에서 보듯 도시 경쟁력은 기업 유치가 아니라 청년 인재의 밀도와 활동성에서 출발합니다. 개발 위주의 재생은 임대료 급등과 상권 왜곡을 불러오고, 공공 오픈 스페이스는 관리 부재 속에서 사실상 사유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의정부는 '무엇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도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정부에 산업 기반 타운매니지먼트 체계를 도입하여, 청년·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 예방하며, 사람과 콘텐츠 중심의 운영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개발이 아닌 운영을 통해 상권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업 기반 타운매니지먼트 구축

- 망월로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지구 지정
  - ✓ 청년·상권·주거·문화 요소가 혼재된 구간을 중심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지정
  - ✓ 소규모 상점·골목상권·생활문화공간 통합 관리
  - ✓ 공공 오픈스페이스 활용도 제고 및 사유화 방지 체계 구축
- 타운매니저(전문 운영인력) 도입
  - ✓ 공간 관리·프로그램 기획·상생협약 관리 전담
  - ✓ 임대료·업종 변화 모니터링 및 분기별 공개

✓ 축제주간·공공팝업·청년 프로젝트 상시 운영 총괄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예방 제도화
  - ✓ 임대료 인상률 자율 상생협약 체결
  - ✓ 협약 참여 건물주 리모델링 비용·행정 인센티브 지원
  - ✓ 필요 구간 1층 상가 업종관리 기준 마련
  - ✓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시 지역상권 영향 사전 심의
- 공공 오픈스페이스 기반 청년활동 플랫폼 구축
  - ✓ 누구나 시도 가능한 '공공 팝업' 공간 운영
  - ✓ 창작자·기획자·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 도시 이벤트 밀도 확대를 통한 방문객 유입
- 소셜벤처·임팩트 산업 생태계 조성
  - ✓ 의정부형 소셜벤처 허브 공간 조성
  - ✓ 공유오피스·공유주택 모델 도입
  - ✓ 민간 플랫폼·임팩트 투자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공공-민간 공동 임팩트 금융 도입
  - ✓ 의정부형 임팩트펀드 조성
  - ✓ 보조금이 아닌 회수 가능한 투자 구조 설계
  - ✓ 투자-회수-재투자 순환구조 확립
- 주민이 결정하는 상생 운영 구조
  - ✓ 타운운영협의체 구성(주민·상인·건물주 공동 참여)
  - ✓ 예산·프로그램·입점 기준 협의·의결
  - ✓ 행정은 조율 플랫폼, 주민은 실질적 결정 주체

- 예정위치 : 망월로 일대(시범지구), 의정부역 원도심 상권
- 사업예산 : 구역당 연 3억원(타운매니저 인건비·운영비)
- 이행기간 : 2007년~2028년
- 국비사업 : 국토교통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 지원사업」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임팩트펀드)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망월로 시범지구 1개 조성
  타운매니저 2명 배치
  상생협약 체결 건물 50개
  청년 창업 100팀 유치

3) 제일시장 야간 팝업 야시장 운영

의정부 제일시장은 오랫동안 원도심의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낮에는 장을 보러 오는 시민들로 활기가 있지만, 저녁이 되면 시장은 빠르게 문을 닫고 상권은 정지합니다. 불이 꺼진 골목은 사람의 발길도 끊기고, 소비도 멈춥니다. 상권은 '낮의 시장'에 머물러 있고, 밤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이제 야간 경제(Night Economy)에서 갈립니다. 서울 광장시장, 부산 부평깡통시장,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사례에서 보듯, 전통시장은 밤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공연·청년창업·관광이 결합된 문화형 상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원도심 역시 낮과 밤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일시장은 구조상 실내 통로형 공간이 많고, 기존 상인들이 퇴근한 이후 상당한 구역이 미사용 상태로 남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시장을 '야간 팝업형 야시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 상인의 영업권은 존중하되, 퇴근 이후 시간대에 공간을 공유하여 청년·퇴직자·예비창업자에게 저비용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체험형 야간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제일시장 야간 팝업 야시장 조성
- 야간 미사용 구역 시간제 활용
  - ✓ 상인 퇴근 이후 공간 시간제 임대
  - ✓ 통로·공터·공용구역 중심 활용
  - ✓ 기존 상인 영업권 침해 금지 원칙
- 팝업스토어형 부스 설치
  - ✓ 이동식 모듈형 부스 도입
  - ✓ 푸드·핸드메이드·굿즈·일러스트 등 소규모 판매 가능
  - ✓ 단기 1일~1개월 단위 테스트 운영
- 체험·공연 중심 프로그램 운영

✓ 버스킹·청년 공연·전통문화 체험
✓ 지역 예술인·동아리 참여
✓ 주말·축제 연계 집중 운영

예비창업자 지원 시스템 구축

• 저비용 창업 테스트베드 제공
✓ 보증금 최소화
✓ 일일·주간 단위 임대 가능
✓ 창업 전 시장 반응 확인
• 청년·시니어 우선 참여 제도
✓ 청년창업자·퇴직자 재창업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참여 가능
• 창업 교육 연계
✓ 위생·세무·마케팅 교육
✓ 온라인 판매 연계 컨설팅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시장 번영회·상인회와 협약 체결
✓ 야간 운영 구역·시간 명확화
✓ 상인과 수익 공유 모델 설계
• 운영지침 및 관리기준 마련
✓ 전기·소방·위생·청소 관리
✓ 보험 가입 의무화
✓ 소음·안전 기준 설정
• 통합 야간 운영 관리단 구성
✓ 타운매니저 또는 야시장 운영팀 배치
✓ 방문객 통계·매출 데이터 관리

▪ 예정위치 : 의정부 제일시장 내 미사용 구역
▪ 운영시간 : 오후 6시 ~ 11시 (주 3~5일 시범 운영)
▪ 사업예산 : 5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연간 방문객 20만 명 유치
예비창업자 200팀 참여
야간 매출 30% 증가
공실 구역 50% 이상 활용

4) 의정부시 좋은 일자리 책임제 시범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반복·저숙련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시 제조·유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청년 고용불안, 중장년 재취업난, 비정규직 증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 공공근로 확대는 일시적 소득보전 효과에 그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만드는 기회는 공정하게 나누고 위험은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좋은 일자리 책임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고용안정·사회보험·직무성장 가능성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관리·평가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도시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정부 좋은 일자리 기준 수립 및 책임제 도입
- OECD 일자리 질 기준 반영, '의정부형 좋은 일자리 지표' 마련
- 월 임금 기준·사회보험 가입·고용유지 기간 포함한 인증제 도입
-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 및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제공
- 채용 후 6개월·1년 고용유지율 공개 및 책임평가제 운영

AI·기후·돌봄·안전 분야 전략일자리 창출
- 기후·환경 분야 : 탄소중립 관리, 에너지 데이터 분석 등
- 돌봄 분야 : 노인 돌봄 로봇 관리사, AI 건강모니터링 코디 등
- 안전·감염병 대응 : 지역방역 전문요원, 재난데이터 관리인력 등
- 도시재생·지역문제 해결 :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코디 등
- AI 데이터 구축 : 공공데이터 라벨링·데이터 정제 전문인력 등

직무전환·재교육 패키지 운영
- 중장년·실직자 대상 AI·디지털 전환 직무교육 운영
- 지역 대학·폴리텍·기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설
- 기업 현장연계형 인턴십·전환형 채용 지원
- 직업상담·경력설계 코칭센터 설치

청년·창업 연계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 인건비 일부 지원(고용유지 조건부)
- AI·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 스타트업-지역기업 연계 프로젝트 고용 지원
- 청년 고용유지율 1년 이상 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공

좋은 일자리 책임 거버넌스 구축

- '의정부 좋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노동·기업·전문가 참여)
- 고용현황 분기별 공개
- 시민참여 고용포럼 운영
- 고용의 질 개선 목표 달성 시 성과연동 예산 확대

- 예정위치 : 의정부시 전역(산단, 도시재생구역, 공공기관 연계)
- 사업예산 : 100억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좋은 일자리 1,000개 창출
  참여기업 100개 확보
  고용유지율 80% 이상 달성
  직무전환 교육 2,000명 지원

5) 시민공론화를 통한 UBC 개발 방향 결정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UBC)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60층 초고층 건물, 호텔, 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은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상권 구조, 공원 면적, 교통체계까지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원이냐, 60층 빌딩이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의정부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시 전략의 문제입니다. 특정 안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UBC 개발의 방향은 반드시 시민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UBC 시민공론화 전면 재추진
- 독립적 시민공론화위원회 재구성
- 무작위 시민참여단(시민배심원단) 구성
- 찬반·대안 모두 동등한 정보 제공
- 3~6개월 숙의형 공론화 진행
- 최종 권고안 공개 및 행정 반영 의무화

'의정부 도시미래 합의' 선행
- UBC 단일 사업이 아닌 도시 20~30년 미래 비전부터 합의
- 컴팩트 시티·15분 도시·네트워크 도시 등 모델 비교
- 녹지율·상업비율·주거비율 기준 시민합의
- 대형개발 전 '도시정체성 선언문' 채택

'의정부 도시계획관(가칭)' 설치
- 스톡홀름 'Stockholmsrummet' 모델 벤치마킹
- 대형 도시 모형·3D 시뮬레이션 상설 전시
- VR·AR 기반 개발안 비교 체험
-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안 시나리오 3안 이상 비교 공개
- ① 초고층 중심 복합개발안
- ② 도심공원 중심 녹지확대안

• ③ 혼합형(공원+저층복합개발) 대안

상권·환경·교통 영향평가 시민 공개
• 행복로·지하상가 상권 영향 분석
• 교통체증·주차·안전 시뮬레이션 공개
• 도시 열섬·녹지 감소 영향 평가
• 장기 재정 부담 분석 공개

시민투표 또는 숙의형 최종의견 수렴
• 공론화 권고안에 대한 시민 최종 의사 확인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투표
• 참여율 기준 명확화

개발이익 시민환원 구조 의무화
• 장기임대·공공환수 원칙 검토
• 개발이익 일부 시민기금 적립
• 녹지·청년주거·복지에 재투자

갈등관리·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 상인·청년·노인·환경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
• 이해관계자 상시 소통 채널 운영
• 합의 과정 기록·공개

▪ 예정위치 : 의정부역 광장 일대(UBC 대상지) 및 인근
공공공간(전시·설명회), 온라인 상설 플랫폼
▪ 사업예산 : 10억 원
▪ 이행기간 : 2027~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행정안전부, 숙의민주주의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거버넌스 공모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시민참여단 200명 내외 구성
대안 3안 이상 영향평가 100% 공개
공론화 최종 권고안 1건 도출
행정 반영 계획 공개 100%
최종의견 수렴 참여 3만 명 이상
공론화 전 과정 기록·아카이브 상시 공개

6) 고향사랑기부금 40억 달성

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2024년 실적이 약 2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논산 14억 원, 진천 8억 원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청년주거, 돌봄, 공원조성 등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발적 기부 재원 확보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시스템의 편의성 부족, 답례품 경쟁력 부족,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벤트'가 아니라 '의정부 살림을 키우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 후루사토 모범사례처럼 쉽게, 매력 있게, 믿을 수 있게 구조를 혁신하여 임기 중 매년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3분 모바일 원스톱 기부 시스템 구축
- 네이버·카카오 간편 로그인 연계
- QR코드 즉시 기부존 설치(의정부역·행사장·축제현장)
- 세액공제 자동 계산·원클릭 안내
- 기부→답례품 선택→공제신청까지 3분 내 완료

베스트 답례품 집중 전략
- 판매 상위 10개 답례품 집중 육성
- 부진 품목 과감히 정리
- '의정부 인증' 마크 부착
- 후기·인기순위 공개

체험형·정기형 답례품 확대
- 부대찌개 정기배송
- 스포츠 경기 초청권·빙상체험권
- 도봉산 힐링·명상 프로그램
- 청년 문화콘텐츠 구독형 답례품

목적형 기부제 도입
- '청년주거 기부', '공원조성 기부', '노인돌봄 기부' 선택형 운영
- 사업별 모금현황 공개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월별 기부금 공개 대시보드 구축
• 모금액·집행액·잔액 실시간 공개
• 사업 진행률 그래픽 공개
• 시민감사단 운영

출향인·기업 네트워크 전략
• 전국 의정부 출향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창회·군 인연 네트워크 활용
• ESG 참여 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연말정산·가정의 달 집중 캠페인

운영 효율성 강화
• 답례품 원가·배송비·운영비 월별 점검
• 순수 기부 잔액 관리
• 세무·재정 부서 중심 책임 운영

▪ 예정위치 : 의정부시 전역
▪ 사업예산 : 10억 원(시스템 개선·홍보비, 연간)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시비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사업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연 10억 원 모금
임기 중 총 40억 원 달성
재기부율 40% 달성

나. 참여·자치

1) 복수의 주민자치회 허용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시청과 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동네 단위에서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치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읍·면·동장 주민추천·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등이 모두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반쪽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각 지자체 표준조례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는 단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동에 주민자치회는 하나뿐입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구조일 뿐, 자치의 확장을 위한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기존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 집단이 장기간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면,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통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과 참여 속에서 성장합니다. 한 동에 복수의 주민자치회를 허용하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계층, 생활권, 관심 의제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중심 자치회, 역세권 상권 중심 자치회, 아파트 단지 중심 자치회, 원도심 골목 중심 자치회 등 다양한 자치 모델이 공존할 때, 비로소 주민자치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의정부의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위원회 시절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은 배정되지만 결산과 평가 과정은 형식적입니다. 참여는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복수 주민자치회 허용과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을 통해, '동원형 자치'가 아닌 '경쟁과 책임의 자치'로 전환하겠습니다.

복수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 동 단위 복수 주민자치회 허용
  - ✓ 연령·계층·생활권·의제 중심 자치회 설립 가능
  - ✓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운영 허가
  - ✓ 행정동 단일 독점 구조 개선
- 자치회 설립 요건 명확화
  - ✓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 확보
  - ✓ 운영규약·회계규정 의무화
  - ✓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 주민자치회 간 공개 경쟁 구조
  - ✓ 사업 제안 공모 방식 도입
  - ✓ 성과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배정
  - ✓ 우수 사례 전 동 확산

주민참여결산제 도입

- 예산 편성뿐 아니라 결산까지 주민 참여
  - ✓ 주민총회에서 사업 결과 공개
  - ✓ 예산 집행 내역·성과보고 의무화
-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 구축
  - ✓ 사업 효과·참여도·지속성 평가
  - ✓ 외부 전문가·시민 평가 병행
-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
  - ✓ 온라인 공개 플랫폼 구축
  - ✓ 연 1회 결산보고 의무화

자치회 권한과 예산 강화

- 주민참여예산 일부 의무 배정
  - ✓ 동 단위 예산의 일정 비율 자치회 배정
  - ✓ 자율 사업 기획권 보장
- 마을기업·주민공동체 사업 연계

✓ 복지·환경·교육·문화 사업과 연동
✓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연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연계
✓ 정부 시범사업과 적극 협력
✓ 자치회 의견 행정 반영 구조 강화

- 시행시기 : 2027년~2029년
- 사업예산 : 동별 1~3억 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재원조달 : 주민참여예산 일부 전환 + 시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복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3개 동
  주민참여결산제 도입
  주민총회 참여율 30% 이상 확대
  청년 참여 비율 20% 이상 확대

2) 민주시민 & 헌법 교육 지원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한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책임을 배우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청년층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과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현상은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의 공백이 낳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정부는 다양한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미군기지 역사, 외부 유입 인구, 신도시와 원도심의 혼재, 다양한 계층 구조 속에서 공동체 정체성과 소속감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도시일수록 헌법적 가치, 인권, 자치, 공동체 책임을 공유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노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과 헌법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극단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금지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의정부만의 민주시민·헌법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의회 모델을 운영하며, 그 결의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의정부형 민주·인권 교육 교재 개발
- 의정부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 ✓ 헌법 가치·인권·자치공동체 중심
  - ✓ 지역 역사·미군기지·평화·다문화 요소 포함
  - ✓ 초·중·고 학년별 맞춤 구성
- 공교육 과정 연계 추진
  - ✓ 교육청과 협의체 구성
  - ✓ 창의적 체험활동·사회과목 연계
  -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의회 활성화
  ✓ 학생자치회 권한 확대
  ✓ 학교 현안 토론 및 정책 제안 제도화
  ✓ 지역사회 현안 연계 모의토론 운영

청소년의회·청년의회 제도화

• 모든 정당 참여 가능한 중립 구조
  ✓ 정치 중립 원칙 명문화
  ✓ 정당·시민단체·전문가 공동 자문
• 실질적 권한 부여
  ✓ 청소년·청년의회 결의안 시정 반영 검토 의무화
  ✓ 연 1회 시장·의회 공식 답변 제도
• 시민주권예산 배정
  ✓ 일정 규모 예산 청소년·청년의회에 배정
  ✓ 직접 제안·토론·의결·집행 점검

지역사회 이해 및 공동체 교육 강화

• 유치원·초등학교부터 공동체 교육
  ✓ 지역 역사·마을 탐방 프로그램
  ✓ 지역 문화유산 체험
• 작은도서관·평생학습관 활용
  ✓ 헌법 강좌·민주시민 강좌 정기 개설
  ✓ 부모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 세대 통합 토론 프로그램 운영
  ✓ 청년-중장년-시니어 공동 토론
  ✓ 혐오·갈등 예방 교육

▪ 추진시기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2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교육청 협력사업 + 평생교육 예산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의정부형 교재 1종 개발
  청소년의회·청년의회 연 2회 정례 운영
  시민주권예산 5억 원 배정
  민주시민 교육 참여 학생 1만 명 달성

3) 의정부 민주주의 정치축제 운영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점에 이르렀다가,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행정 역시 "닫힌 결정-뒤늦은 반발-계획 변경-시간과 예산 낭비"라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정 전에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 동의를 얻은 뒤, 빠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도시의 상시적인 공론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의정부 정치주간〉, 민주주의 정치축제입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의 혁신입니다. 시민이 정치인·공무원·전문가와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아 질문하고, 제안하고, 논박하는 열린 공론장입니다.

세계에는 이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폴케뫼데는 시민이 주인인 토론광장입니다. 스웨덴 알메달렌 주간은 도시 전체가 일주일간 공론장이 됩니다. 영국 벨파스트 정치축제는 예술과 결합해 정치적 갈등을 문화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상시성, 개방성, 공정성입니다. 행정은 공간과 규칙만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채웁니다.

한국의 정책박람회는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여전히 행정 주도 전시형 행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제가 되고 도시가 무대가 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합니다. 의정부를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주도형 정치축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덮는 행사가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고 토론하는 기술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의정부 정치주간〉 신설
- 매년 같은 시기 연례 개최
  - ✓ 5~7일간 집중 운영
  - ✓ 광장·공원·도서관·학교·시장·골목 등 도시 전역 활용

• 도시 전체를 공론장으로 전환
  ✓ 특정 컨벤션 중심이 아닌 분산형 운영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 구조

핵심 프로그램 구성

• 시민정치부스
  ✓ 정당·시민단체·노조·기업·대학 등 동일 크기 부스 운영
• 시민정책무대
  ✓ 10분 제안–10분 질의 형식, 현안 토론 기록 공개
• 청년 민주랩
  ✓ 모의의회·정책 해커톤, 청년 정책 제안 강연
• 현장탐사 워크숍
  ✓ 공여지·역세권·보행도시 등 현장 방문 후 토론
  ✓ 전문가·공무원 동행 설명
• 예술과 정치 결합
  ✓ 연극·영화·음악·전시를 통한 의제 접근
  ✓ 갈등 완화형 문화 프로그램
• 시민예산 공개·편성 세션
  ✓ 제안–토론–투표–집행–결산 전 과정 공개

운영 원칙 및 구조

• 정치적 공정성 보장
  ✓ 모든 정당 동일 참여 조건, 행사 운영 중립위원회 구성
• 참여자 제안 중심 구조
  ✓ 프로그램 70% 이상 시민 공모, 행정은 공간·안전·기록 관리
• 기록과 정책 반영 의무화
  ✓ 토론 결과 공식 보고서 발간, 시정 반영 여부 공개

▪ 이행시기 : 2027년(시범 개최)
▪ 운영기간 : 5~7일
▪ 사업예산 : 20억 원
▪ 재원조달 : 시비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참여 시민 5만 명 이상
  300개 이상 세션 개최
  정책 제안 100건 이상 접수
  시정 반영 30건 이상

4) 비밀 없는 완전공개 시정 구현

행정은 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보공개는 형식적 공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백 쪽 PDF, 난해한 회계용어, 부서 중심 분류체계는 시민의 이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민은 "세금이 어디 쓰였는지", "공사비는 왜 늘어났는지", "복지에서 왜 누락됐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적인 보고형 공개가 아니라, 실시간·이해 중심·참여형 정보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정뿐 아니라 조달, 인사, 복지, 건축허가, 도시계획까지 모든 핵심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쉬운 문서·시각화 중심 정보공개 전환
- 텍스트 PDF 중심 구조 탈피, 표·그래프·대시보드 기반 공개
- 예산·결산·잉여금·사업별 집행현황 시민 언어로 변환
- 공사 진행률, 계약 변경이력, 이자지출 등 시각화 제공
- 모바일·고령층 친화 UI 설계

전 부서 '오픈 API' 전환
- 예산·조달·인사·건축허가·복지지급·민원·도시 데이터 API 개방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 표준화
- 시민 개발자·청년·연구자·기업 2차 서비스 제작 보장
-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공개 및 자동 갱신 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정보개방 공동설계위원회 운영
- 시민·전문가·공무원·개발자 참여
- 공개 대상·방식·우선순위 시민과 공동 결정
- 첫해 핵심 데이터 50개 우선 공개

AI 기반 시민질문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
- 예산·결산·공정률·감사자료 자동 연동
- 음성대화·영어지원·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 포함

정보 이해 도우미 플랫폼 운영
- 회계·행정 용어 해설 및 분야별 시민 가이드 제공
- 주요 사업 1분 요약 영상 자동 생성

• 시민단체·언론·학생이 활용 가능한 분석 지원 구조 설계

정부 부처 데이터 연계 강화

• 조달청 계약자료 연계(공사비·계약처·변경이력)
• 지방재정 시스템 연동으로 집행·공정도 공개
• 중앙정부 디지털플랫폼 정책과 연계한 국비 확보 추진

추진체계

• 「정보공개조례」 전면 개정(시민 이해 중심 공개 원칙 명문화)
• 전 부서 '공개 전환 가능성' 평가 및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 오픈 API 개발 및 시민개발자 지원사업 운영
• 공공 AI 활용 시스템 단계적 시범 운영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11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공모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핵심 행정데이터 100% 실시간 공개
시민 질문 평균 응답시간 10초 이내
정책 정보 접근 만족도 80% 이상
데이터 기반 시민서비스 50건 이상 창출

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 지원

지방자치는 가까운 문제를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정보입니다. 시민이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고, 토론하고, 감시할 때 비로소 자치는 작동합니다. 이 핵심 고리를 지탱하는 주체가 바로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입니다.

최근 언론 소비가 수도권 중심 포털과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지역 뉴스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중소도시의 공론장은 점차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제가 포털 알고리즘에서 밀려나고, 중앙 정치 이슈에 가려 동네 문제는 논쟁의 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역언론의 약화는 곧 생활 민주주의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신문사가 아니라 생활 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중앙언론이 국가 어젠다를 다룬다면, 지역언론은 우리 동네 도로, 학교 급식, 도시계획 변경, 예산 집행,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생활 의제를 다룹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며, 숨은 공익 의제를 발굴합니다. 지역언론이 약해질수록 권력은 비대해지고 시민의 알 권리는 위축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장 실패도 직시해야 합니다. 광고 수입의 플랫폼 이전, 구독 감소, 인력 유출 등으로 지역신문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90여 개 지역신문사에 100억 원 규모의 공익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아직 미비합니다.

의정부시 차원의 '지역언론 선진화 조례' 제정과 시민참여형 언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원의 근거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언론 선진화 조례 제정

- 민관 합동 독립 심의위원회 구성
  - ✓ 시장·의회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공모·심사·평가 수행
  - ✓ 학계·법조·언론계·시민사회 참여 / 이해충돌 방지, 심사과정 공개
- 공익 항목 가중 지원 체계 마련
  - ✓ 지역 감시보도·탐사보도 / 생활밀착형 데이터 저널리즘
  - ✓ 청년·아동·노인·장애인 등 약자 목소리 확대
  - ✓ 문화·환경·복지 의제 강화
- 질적 성과 중심 평가
  - ✓ 기사량이 아닌 정책 개선 기여도
  - ✓ 독자 참여도·도달률·팩트체크 성과 반영
  - ✓ 선정 사유·예산 집행·성과 전면 공개

시민참여 언론 생태계 구축

- 시민기자단 운영
  - ✓ 동네 의제 발굴·현장 취재 지원
  - ✓ 지역신문사와 동행 취재 정례화, 세대별 공개 모집
- 지역신문 아카데미 개설
  - ✓ 청소년·청년·시니어 맞춤 과정
  - ✓ 팩트체크·데이터 읽기·저작권·명예훼손 교육
- 공익출판·지역브랜드 프로젝트
  - ✓ 마을 아카이브·지역문화사 발간
  - ✓ 도시혁신 사례집·공공디자인 기록
- 공공데이터 연계 지원
  - ✓ 예산·교통·도시계획·환경 데이터 개방
  - ✓ API 기반 데이터 활용 지원
- 중앙 지원체계와 매칭
  - ✓ 언론진흥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업 매칭
  - ✓ 디지털 전환·탐사보도 프로그램 연계

- 이행시기 : 2027년~2030년
- 사업예산 : 2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지역언론 선진화 조례 제정, 시민기자단 100명 양성, 공익기획취재 연 20건 지원,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 10건 추진

6) 자존감 높은 선배시민 육성

의정부시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평균(약 21% 내외)과 유사한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민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노인을 'Know人', 즉 경험 많은 시민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후배세대와 연결되며,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세우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선배시민을 육성하여 의정부를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선배시민 아카데미 운영
- 선배시민 개념 교육 및 시민역할 재정립
- 지역 역사·문화·의정부학 과정 운영
- 세대공감 리더십 교육
- 평생학습관·노인복지관 중심 정기 운영

선배시민 지역참여 플랫폼 구축
- 마을 활동가·멘토·자원봉사 연계
- 청년·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도시환경 개선·문화행사 참여
- 세대 통합 프로젝트 추진

선배시민 일·경험 공유 사업
- 공공일자리와 연계한 경력 활용형 참여

- 지역기업·사회적기업 자문단 구성
- 전통기술·생활지혜 전수 프로그램
- 은퇴전문직 인력풀 구축

선배시민 조례 제정
- '의정부시 선배시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존엄한 노년 지원
- 생존권·복지권·존엄한 삶 보장 명문화

- 예정위치 : 의정부시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 사업예산 : 20억 원 내외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선배시민 아카데미 연 1,000명 참여
  세대 연계 프로그램 30개 운영
  선배시민 자원활동 5만 시간 창출
  선배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 100건 이상

다. 교육·복지

1) 통합돌봄실무지원단 신설

의정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여전히 분절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가 끝나면 퇴원으로 역할이 종료되고, 보건소는 방문관리 중심, 복지부서는 별도 사례관리로 움직입니다. 연결은 있어도 통합은 부족합니다. 현재 통합돌봄 협의체는 기관장·전문가 중심의 회의 구조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능은 수행하지만, 현장에서 퇴원 이후 연계, 고위험군 발굴, 의료-요양-복지 통합사례관리까지 '실행'하는 조직은 부족합니다. 특히 의정부는 주민 기반 의료조직이 취약하고 1차 의료기관도 개원 중심 구조가 많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엮어내는 허브가 약합니다.

협의체는 유지하되, 현장을 움직이는 실행조직인 '통합돌봄 실무지원단'을 신설하겠습니다. 협의만 하는 돌봄이 아니라, 움직이는 돌봄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정부 통합돌봄 체계를 '전략 협의체 + 실행 실무지원단'의 이중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기관장 중심 협의체 기능 유지

- 통합돌봄 기본계획·중장기 전략 수립
  - ✓ 통합돌봄 추진방향·우선과제 설정, 연차별 목표·성과지표 확정
- 예산·정책 조정 기능 강화
  - ✓ 부서·기관 간 역할 조정, 예산 배분·사업 조정 심의

통합돌봄 실무지원단 신설

- 실무지원단 구성(현장 연계 핵심 주체 참여)
  - ✓ 보건소 방문간호·건강관리 실무
  - ✓ 의정부의료원(재택의료·연계 실무)
  - ✓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을지대병원 협력 실무
  - ✓ 읍면동 복지담당(찾아가는 복지)
  - ✓ 치매안심센터·장애인 지원 실무

✓ 재가·방문간호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

- 실무지원단 역할('48시간' 실행체계 구축)
  - ✓ 고위험 대상자 발굴(독거·만성질환·퇴원예정·돌봄공백)
  - ✓ 퇴원-재가 연계 48시간 내 초기평가 시행
  - ✓ 의료·요양·복지 통합사례관리(케어플랜 수립·조정)
  - ✓ 만성질환·기능저하 위험군 지속관리(재입원 예방)
  - ✓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주 1회/격주 1회)
  - ✓ 응급·위기 대응 연계(야간·휴일 연락체계 포함)

병원-보건소-읍면동 연계 강화

- 퇴원-재가 연계 프로토콜 구축
  - ✓ 병원 퇴원 전 사전 의뢰(퇴원계획 공유)
  - ✓ 재가 서비스 연결(방문간호·요양·식사·주거)
  - ✓ 재입원 위험 신호 기준 마련(알림·재평가)
- 재택의료 협력의사 등록제 도입(검토)
  - ✓ 공공의료원 중심 재택의료 표준모델 구축
  - ✓ 민간 병원·의원 참여 확대(등록·협약 방식)
  - ✓ 참여기관 인센티브(교육·홍보·연계 우선권) 검토

지역 기반 확충

- 방문간호 인력 1~2명 단계적 증원
  - ✓ 가정전문간호사 공동관리 모델 확대, 케어코디 가능 부여
- IT 기반 케어플랜 공유 시스템 구축
  - ✓ 기관 간 케어플랜 공유(최소정보 표준화)
  - ✓ 대상자 상태·서비스 제공 이력 관리
  - ✓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른 접근권한 설정

실행체계 구축

- ✓ 실무지원단 전담 간사 지정(총괄 창구)
- ✓ 48시간 초기평가 운영 매뉴얼 마련
- ✓ 사례회의 운영 규칙(의사결정·조정·기록) 확정

- 시행시기 : 2027년~2029년
- 사업예산 : 2억 원(초기 구축)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기존 고령층 집중지원 예산 조정)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퇴원-재가 연계 48시간 내 초기평가 체계 구축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정례화
  재입원률 감소 및 돌봄공백 최소화

2) 이주민·난민 지원체계 고도화

의정부는 군사도시, 산업도시, 교통도시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이며,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조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보장 조례입니다. 그러나 광역조례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형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의정부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차별 없는 도시, 안전한 정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주민·난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 '이주민 인권·사회통합 지원센터(가칭)' 설립
- 인종차별·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법률상담 연계
- 통역·행정절차 안내 원스톱 제공
- 긴급구제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 상담·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난민·인도적 체류자 긴급 생계·주거 지원
- 난민 신청자·인도적 체류자 대상 최소생계 보장
- 긴급주거 연계 프로그램 신설
- 민간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 위기상황 발생 시 단기 집중지원 체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
- 의료·예방접종·교육 서비스 접근 보장
- 학교·보건소 연계 보호체계 마련
- 신분 문제로 인한 서비스 배제 방지
- 사례관리 전담체계 운영

이주민 역량활용 취업·창업 지원

- 직업교육·기술훈련 연계
-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창업 지원
- 통번역·다문화 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활용

의정부시 이주민 인권보장 조례 제정

- 경기도 3대 조례를 기초단위로 구체화
- 인권침해 대응 절차 명문화
- 차별금지 원칙 및 권리보장 기준 확립
- 통합 실태조사 및 정책평가 의무화

- 예정위치 : 의정부시청 복지국 또는 별도 지원센터
- 사업예산 : 3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인권침해 신고 100% 대응체계 구축
  긴급지원 대상자 500명 이상 지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율 100% 달성
  취업·직업훈련 연계 300명 이상

3) AI를 이기는 시민 양성

의정부시는 AI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입니다. 공공행정에서도 보도자료 작성, 말씀자료 정리, 언론 모니터링, 공적조사 등 반복 문서업무에 AI 자동화를 도입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시민 생활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의존이 심화될 경우 읽기·쓰기·사유 능력 약화, 정보 판별력 저하, 학습격차 확대, 윤리 문제, 딥페이크·오남용 피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AI를 잘 쓰는 도시"가 아니라 "AI를 이기는 시민을 키우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사고력·판단력·윤리성·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윤리·안전 교육을 필수화하고, AI 오용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읽고 쓰는 힘을 회복하는 교육을 통해 의정부 시민의 지적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의정부 AI 시민역량학교 운영
- AI 리터러시(사실판별, 출처검증, 편향 구분) 교육
- 질문 설계 능력(프롬프트 이전의 사고구조 훈련)
- AI 생성물 재구성 글쓰기 훈련
- 연령별 맞춤과정(초·중·고·청년·중장년·어르신)
- 평생학습관·작은도서관 거점 상설 운영

AI 윤리·안전 필수교육 체계화
- '기계보다 사람 우선' 원칙 정립
- 개인정보·저작권·딥페이크 대응 교육
- AI에 의한 학습격차 방지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교육청 협력 시민·학생 통합교육 모델 구축

AI 스쿨 가디언(오용·부작용 대응센터) 신설
- AI 오남용·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

- 학교·학부모 상담 및 법률·경찰 연계
- 피해 초기 대응 매뉴얼 구축
- 온라인 익명 상담 시스템 운영
- 연 1회 이상 학교 순회 예방교육

읽고 쓰는 힘 회복 프로젝트
- 펜글씨 수업 및 필사 프로그램 운영
- 느린 읽기·토론형 독서클럽 확대
- 디지털 과의존 학생 대상 사고력 회복 과정
- 청소년·청년 글쓰기 공모전 및 토론대회 운영

공공행정 AI 책임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문서 자동화는 확대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 책임 원칙 명문화
- 개인정보 입력 금지·기록관리 체계 구축
- AI 활용 로그 점검 및 감사 가능 구조
- 공무원 대상 AI 활용·윤리 교육 의무화

- 예정위치 : 의정부시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청(가디언센터)
- 사업예산 : 30억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사업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연간 시민 5,000명 AI 리터러시 교육 참여
  AI 윤리·안전 교육 이수율 90% 달성
  AI 오용 피해 대응 100% 상담체계 구축
  펜글씨·읽기 프로그램 100개 운영

4) 인권보호형 경기 공공요양마을 조성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요양시설은 집단수용형 구조, 인권침해 논란,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설 내 격리·통제'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네덜란드 호그백(Hogeweyk) 치매행복마을 모델을 참고하여, 시설이 아닌 '마을' 개념의 인권보호형 공공요양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파주 시립요양원의 공공책임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공공성이 보장된 통합형 요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0명 규모 통합형 공공요양마을 조성
- 입주 정원 150명(주간·단기·장기 통합 운영)
- 장기요양 1~5등급 대상 통합케어 모델 구축
- 1인실 중심 설계(프라이버시 보장) + 소규모 공동가정형 구조
- 의료·재활·치유·여가·지역상점이 결합된 마을형 배치

인권보호형 공간 설계
- 자유로운 외출·산책이 가능한 개방형 동선
- 병원식 병동 구조가 아닌 '생활가정' 단위 설계
- 공용 주방·카페·작업실·텃밭·치유농장 설치
- CCTV 최소화, 감시가 아닌 지원 중심 운영
- 입주자 자기결정권 보장 원칙 명문화

주간·단기·장기 통합 돌봄 시스템
-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실, 장기요양동 통합 배치
- 퇴원 후 회복·재가 전환 연계 시스템 구축
- 치매전담 전문케어팀 상시 운영
- 의료기관·보건소·정신건강센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요양보호사 부족 해결 : 네트워크시티·지역화폐 연계
- 요양보호사 근무자에게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역상권과 연계한 '케어패스' 제도 도입
- 네트워크시티(생활SOC·공공시설)와 연계한 근무환경 개선
- 청년 요양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화폐(Time Banking) 기반 참여 돌봄

- 건강한 노년층·지역주민 참여형 시간화폐 제도 도입
- 봉사 1시간 = 돌봄 포인트 적립
- 추후 가족 돌봄·본인 노후 돌봄 시 사용 가능
- 운영비 일부를 시간교환 시스템으로 절감

청년 창업형 치매안심 마을 연계

- 돌봄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창업공간 설치
- 치매예방·인지재활 콘텐츠 개발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참여형 운영 모델 도입
- 지역 대학과 산학연계

- 예정위치 : 공공유휴지 또는 역세권 인접 지역
- 사업예산 : 800억
- 이행기간 : 2027~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보건복지부 공공요양 인프라 확충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150명 안정적 돌봄 제공
  요양보호사 이직률 30% 감소
  입주자·가족 만족도 90%
  재가전환 성공률 20% 향상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5) 맞춤급식·건강식당 인증제 도입

현재 학교급식은 동일 연령대 학생에게 동일한 표준 식단을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알레르기, 비만·저체중, 성장기 운동선수, 채식 선택 등 매우 다양해 일률적 급식 체계만으로는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의정부는 고령층 만성질환(당뇨·고혈압 등)과 영양결핍 위험이 늘고 있는데, 어르신이 일상에서 건강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의정부가 '급식은 배식'이라는 관성을 넘어, 학생과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공영양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건강급식 물류·데이터·현장 실행을 한 번에 묶는 의정부 건강급식센터를 구축하고, 학생에게는 건강상태 기반 5종 맞춤급식을, 어르신에게는 건강식당 인증제를 도입해 '공급-소비-건강관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건강급식센터(공공 건강급식 물류센터) 구축
- 학교·경로당·복지관 식자재 통합 구매·품질관리 체계 구축
- 건강맞춤형 식재료 분류·공급이 가능한 통합 물류라인 설계
- 경기북부 로컬푸드 연계 물류체계 구축, 지역농가 계약재배 확대
- GMO·첨가물 최소화 기준 및 식재료 안전·추적관리 강화

학생 건강맞춤형 급식 5종 시범 운영(선진국형 모델 도입)
- 일반형(표준 영양식단) 운영 안정화 및 영양기준 고도화
- 알레르기 대응형(난류·우유·땅콩 등) 대체식단 표준화
- 체중관리형(저당·저염·저지방) 맞춤식단 제공 및 상담 연계
- 비건·채식형(식물성 단백질 기반) 선택권 보장 및 영양 보완
- 스포츠·고단백형(성장기 운동학생) 맞춤 단백질·에너지 설계

AI 기반 건강정보 연계 맞춤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
- 건강상태 사전 조사 및 급식 선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 보건교사·영양교사 협업으로 건강위험군 조기관리 연계
- 비만·당뇨 위험군 교육(체육·보건)과 급식의 연동 프로그램 운영
- 건강기록·설문 기반 AI 맞춤식단 추천 및 급식 보급 체계화

환경·지역먹거리 중심 건강급식 확대

- 경기 로컬푸드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 및 저탄소 식단 구성
- 학교텃밭·도농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생활 교육 강화
- 친환경 식재료 우선 사용, 급식 잔반 저감 프로그램 병행
- 지역 농가·가공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 구축

고령층 '건강식당 인증제' 신설

- 당뇨·고혈압 등 질환군에 적합한 저염·고단백 건강식단 보급
- 의정부시 인증 건강식당 지정 및 표준 레시피·원재료 공급 연계
- 어르신이 이용하고 식당과 의정부시가 정산하는 방식 도입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

- 방학 중 무급기간을 시설관리·교육 등 유급 전환으로 개선
- 건강식 조리 전문교육 확대 및 안전한 조리환경 지원
- 교육청 협의로 방학 중 노인 건강급식 등 업무 지원체계 마련
- 급식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및 인력 공백 최소화 운영모델 도입

저녁급식·공공급식 확대

- 돌봄 아동·야간 자율학습 학생 대상 저녁급식 시범 운영
- 저소득·1인가구·고령층 대상 공공급식 확대 및 식권 바우처
- 학교·복지시설·건강식당을 잇는 공공급식망 단계적 확장

▪ 예정위치 : 의정부 건강급식센터(신설) + 시범학교(초·중·고)
+ 건강식당 인증 업소
▪ 사업예산 : 102억 원
▪ 이행기간 : 2027~202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로컬푸드 연계 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영양지원 연계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개선·시범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시범학교 10개교 운영
맞춤급식 참여율 50% 이상
학생 비만율 5% 감소
학부모 만족도 85% 이상
건강식당 100개소 인증

라. 도시·교통

1) 의정부 경전철 24시간 운행

도시는 낮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년은 밤에 공부하고, 노동자는 교대근무를 하고, 자영업자는 늦게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나 의정부의 대중교통은 자정을 넘기면 사실상 멈춥니다. 경전철이 끊기면 시민의 이동권도 함께 끊깁니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은 막차 이후 심야 시간대 교통 공백이 발생합니다. 청년·야근 노동자·심야 산업 종사자들은 택시나 대리운전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 부담과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귀가 안전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각종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경전철 심야 확대 운행'은 상위 요구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교통을 닫아두는 것은 모순입니다. 야시장, 심야 상권, 공연·문화 공간을 활성화하려면 교통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을 심야 감축이 아닌 24시간 시범운영 모델로 전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면 확대가 아니라, 심야 간격 운행 방식으로 실험하고 데이터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되, 재정 부담을 통제하는 현실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심야 간격운행 모델 도입

- 24시~새벽 5시 '시간당 1~2회 운행'
  - ✓ 최소 필수 운행 체계 구축
  - ✓ 안전 확보 전제 하에 단계적 확대
- 도심 핵심 구간 우선 적용
  - ✓ 송산-의정부시청-탑석 중심
  - ✓ 야간 수요 집중 구간 우선 시행
- 이용 수요·비용 대비 효과 분석

✓ 6개월 시범운영
✓ 탑승객 데이터 기반 정책 판단

3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조 개선

- 의정부경전철운영(주)·경기도·의정부시 협의체 구성
  ✓ 비용 분담 구조 협의
  ✓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인력·점검 체계 재편
  ✓ 안전요원·관제 인력 교대 재설계
  ✓ 열차 점검시간 분산 운영
- 심야 운행 조례 또는 운영지침 마련
  ✓ 법적·행정적 근거 확보
  ✓ 안전·보험·비상대응 체계 명확화

재정 부담 최소화 전략

- 최소 편성 운행 모델
  ✓ 심야 시간대 저밀도 운영
  ✓ 전력·운영비 절감 구조 도입
- 야간경제와 연계한 수익 창출
  ✓ 야시장·공연·축제와 연계 프로모션
  ✓ 심야 광고·스폰서십 도입
- 국·도비 지원 연계
  ✓ 교통복지·청년정책 예산 연계
  ✓ 광역교통 개선 사업 공모 추진

- 추진시기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30억 원(시범구간 기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심야 이용객 1일 1,000명 이상 확보
  택시 의존도 20% 감소
  심야 귀가 안전 체감도 30% 향상
  야간 상권 매출 15% 증가

2) 도시공간 민간전문가 자문 활성화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노후 주거지, 침체된 상권, 역세권 고밀개발 문제 등 복합적인 도시 구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정책은 부서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장기적인 공간전략과 통합 설계 기능은 부족했습니다. 기업 유치나 대규모 개발 구상은 반복되지만, 비역세권 입지 한계와 재정 부담, 주민 갈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정책 피로도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정부는 반환공여지와 국공유지 활용이라는 특수한 공간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전문 컨트롤타워가 부족합니다. 정비사업, 상권재생, 경전철 주변 개발, 주거환경정비가 각각 추진되지만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묶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정책을 행정 내부 검토 수준을 넘어 민간전문가가 상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건축·상권·교통·재정·공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설계부터 실행 자문까지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의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국공유지 기반 도시공간 재편 전략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기반 도시공간 전략자문단 설치
- 반환공여지 및 국공유지를 도시재편 핵심(Core)으로 설정
- 도시계획·건축·교통·상권·재정 분야 민간전문가 풀(pool) 구성
- 주요 개발사업 사전 전략자문 의무화
- 정책 설계-사업화-실행-평가까지 상시 자문 구조 구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체계 도입
- 재정비촉진지구 및 노후주거지 민간전문가 사전 자문 의무화
- 환지 인센티브·공공기여 구조 설계 지원
-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상권·경전철 중심 공간재편 통합 설계

- 경전철 역세권 중심 상권 활성화 전략 설계
-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가로주택·리모델링) 모델 도입
- 공공공간 확충과 기반시설 연계 설계
- 상업·주거·문화 기능 재배치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기본법 제23조 기반 민간전문가 참여제도화
- 정책설계 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 명문화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민간자문 반영
- 국토부·LH·경기도 협업 시범지구 지정 추진
- 정례 브리핑 및 시민 공개 설명회 병행

- 예정위치 : 반환공여지 일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 전반
- 사업예산 : 15억 원 내외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전략자문단 1개 상설 운영
  반환공여지 종합 마스터플랜 1건 수립
  정비사업 사전 자문 20건 이상
  상권 활성화 전략 3개 권역 수립

3) 시민이 결정하는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의정부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미군 주둔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잭슨, CRC,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등 반환공여지는 20년 넘게 뚜렷한 개발 전략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공간은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공여지 개발의 방향을 '공공화'와 '시민이익 공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지를 단순 매각해 일회성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의사결정과 이익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환공여지를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공동소유·시민토지신탁(CLT) 도입
- 핵심 공공구역은 시민토지신탁 방식 적용
  - ✓ 토지는 공동체가 영구 보유, 건물·시설은 장기임대 운영
- 개발이익 지역환원 구조 설계
  - ✓ 시민 출자·참여 기반 의사결정 구조 마련

장기임대 혼합형 개발모델 도입
- 일부 수익형 구역은 30~50년 장기임대 방식 적용
- 민간자본 유치와 공공통제 병행
- 임대수익은 복지·청년·문화 분야 재투자

시민공론화 제도화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모형전시관·VR체험관 운영, 주민투표·시민배심원단 운영

스포츠·의료바이오·IT 삼각벨트 전략 검토(공론화 통해 결정)
- 캠프 스탠리 : 스포츠·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 CRC·캠프 카일 :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특화
- 북부권 병원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
- IT 기업 유치 및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
-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

시민공간 중심 복지형 개발

- 대규모 공원·녹지 조성
- 체육시설·생활SOC 확충
- 청년창업공간·공공문화시설 설치
- 도시재생·주거안정 연계 개발

- 예정위지 : 캠프 스탠리, CRC, 캠프 카일, 잭슨 등 반환공여지
- 사업예산 : 단계별 1조원 규모(장기 프로젝트)
- 이행기간 : 2027~2035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반환공여지 특별법 사회적금융, ESG 투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시민참여율 30% 이상 확보
  공공녹지 비율 40% 이상 확보
  삼각벨트 전략 기반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장기임대수익 연 500억 원 규모 확보

4) 물이 스며드는 스펀지도시 구현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와 폭염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투수성 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은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며, 침수·하수 역류·도로 파손 등 재난을 유발합니다.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대규모 주차장, 보도·차도 등 광범위한 불투수 면적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이제 개발 중심 도시에서 흡수·저장·순환 중심의 스펀지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토지피복도(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불투수성 포장을 한 비율) 30% 개선을 목표로 하는 스펀지도시 전략을 세워, 물을 저장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00% 복합 생태주차공원화
- 기존 공영주차장 전수조사 및 단계별 투수화
- 투수블록·잔디블록·빗물저류층 설치
- 지하저류조 설치 및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주차장 상부 녹지·그늘숲 조성
- 주차+공원+재난대피 기능 결합

보행로·인도 전면 투수화 제도화
- 투수성 포석을 활용한 예술도로 포장 제도화
- 물순환형 보도블록 표준 설계 도입
- 가로수 하부 빗물유입구 확대
- 보도 포장 시 투수성 50% 이상 의무화
- 디자인과 배수를 결합한 '그린 스트리트' 시범구역 운영

신기술 배수성 아스팔트 확대
-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의무비율 설정
- 도로 재포장 시 투수성 포장 우선 적용
- 집중호우 취약지구 우선 교체
-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술 인증 기준 마련

학교·공공시설 스펀지 캠퍼스 조성
- 학교 운동장 일부 투수잔디화

- 옥상 녹화·벽면 녹화 확대
- 빗물정원(Rain Garden) 설치
- 빗물 재활용 화장실 시스템 도입

빗물순환 인프라 구축
- 소규모 분산형 빗물저장소 설치
- 하천·공원 연계 침투형 저류지 조성
- 저영향개발(LID) 의무화
- 침수 취약지역 마이크로 저류시설 설치

건축 인허가 시 토지피복도 기준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불투수 면적 상한제 도입
-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인센티브 제공
- 마당·테라스 녹지율 기준 강화
- 지하주차장 상부 공원화 의무화

시민참여형 스펀지도시 프로젝트
- '우리동네 빗물정원 만들기' 지원사업
- 소상공인 투수포장 전환 보조금
- 주민참여 열섬지도 제작
- 기후학교·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이행기간 : 2027~2030년
- 사업예산 : 300억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환경부 LID사업, 기후기금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불투수 면적 30% 개선
  침수피해 50% 감소
  여름철 도심온도 2도 저감
  빗물 재활용률 20% 달성

5) 예술도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도시는 걷는 순간 기억됩니다. 포장 하나, 바닥 하나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브라질 쿠리치바의 '꽃의 거리',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행친화 블록포장처럼 예술과 보행환경이 결합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됩니다.

의정부를 단순한 통과도시가 아니라 "걷고 싶은 예술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술도로를 산업·관광·창업·교통안전과 결합한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도시브랜드를 혁신하겠습니다.

예술도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
- 중앙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활용
- 반환공여지·중심상권·역세권을 1차 특구 구역으로 설정
- 예술보행로·디자인포장·안전형 포장 의무화
- 도시재생·관광·교통안전 정책과 통합 추진

의정부 특화 예술벽돌·포장 디자인 개발
- 의정부 상징(부대찌개·한글·음악·군사역사 등) 모티브 개발
- 컬러·패턴형 투수성 포장재 표준 모델 개발
- 미세먼지 저감·열섬 완화 기능 결합
- 지역 건축·디자인 대학과 공동 연구

예술도로 자격증 교육 및 산업 인력 양성
- '예술보도 디자이너' 민간자격 과정 개설
- 블록포장 전문 시공기술자 양성
- 청년·중장년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습형 현장 교육센터 운영

예술도로 산업 육성 조례 제정
- 의정부 예술도로 산업 육성 조례 제정
- 지역 기업 우선 참여 규정 마련, 공공발주 예술포장 가점제 도입
- 기술개발·창업기업 세제·입찰 인센티브 제공

예술도로 창업지원센터 설치
- 디자인·시공·재료개발 창업 인큐베이팅

- 시제품 제작 지원
- 공공 프로젝트 연계 실증 기회 제공
- 해외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통안전·보행안전 연계 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디자인포장 의무화
- 고령자 보행구간 미끄럼방지 특수포장 확대
-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선
- 새정부 교통안전 공모사업 적극 유치

예술도로 관광·문화 전략
- '의정부 예술도로 지도' 제작
- 야간조명·미디어아트 결합 보행축 조성
- 거리공연·마켓과 연계
- SNS 인증형 포토존 설치

미군반환공여지와 연계한 대형 예술광장 조성
- 스탠리·CRC 등 대형 부지에 랜드마크형 예술광장 조성
- 대형 패턴형 바닥 아트 조성
- 국제 예술포장 페스티벌 개최

- 이행기간 : 2027~2035년
- 사업예산 : 75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예술도로 10km 이상 조성
  관련 창업기업 100개 육성
  관광객 연 50만 명 증가
  보행안전사고 30% 감소

마. 문화·관광

1) 의정부 축제주간 신설·통합 운영

도시는 축제로 기억됩니다. 어느 도시는 벚꽃으로, 어느 도시는 영화제로, 어느 도시는 음악으로 각인됩니다. 그러나 의정부의 축제는 아직 '브랜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대찌개 축제, BMF(블랙뮤직페스티벌), 송산사지 축제, 시민의 날 행사, 회룡문화제, 민락맥주축제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존재하지만, 연중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도시 전체를 흔드는 임팩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는 각 부서·각 단체별로 개별 기획·개별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무대·음향·홍보 계약이 반복되고, 행정력이 분산되며, 예산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후원에 대한 논란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정 기업 후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축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축제는 많지만 기억에 남는 브랜드는 약한 이유는 바로 집중과 통합의 부재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축제를 하나의 '시즌'으로 묶어 도시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축제를 통폐합하여 '의정부 축제주간'을 신설하겠습니다. 한 주 또는 두 주간,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이 되는 시즌형 운영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공동발주와 통합기획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은 높이며, 의정부만의 문화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축제주간 통합 운영

- 기존 축제 전면 재구성
  - ✓ 부대찌개·BMF·송산사지·시민의날·회룡문화제·민락맥주축제 통합
  - ✓ 축제주간 안에서 소주제별 운영체제로 전환
- 시즌형 집중 개최

✓ 1~2주간 집중 운영
✓ 도심 전역을 연결하는 동시다발형 프로그램 구성
✓ 주말 핵심 대형 행사 + 평일 소규모 문화행사 병행

• 권역별 테마 배치
✓ 원도심-음식·전통 테마
✓ 민락·신도시-청년·맥주·음악 테마
✓ 송산·문화유적-역사·전통 테마

통합기획·공동발주 체계 구축

• 축제통합추진단(TF) 구성
✓ 문화부서·관광·경제부서 통합 협력, 민간전문가·기획자 참여
• 공동발주 시스템 도입
✓ 무대·음향·홍보 일괄 계약, 중복비용 최소화
• 통합 브랜드 개발
✓ 'U-Festival Week' 등 통합 BI 개발
✓ 통합 홍보물·굿즈 제작
✓ 전국 단위 홍보 강화

후원 투명성 및 민관협력 구조 정비

• 스폰서십 기준 명문화
✓ 후원금·협찬 공개 의무화
✓ 특정 기업 종속 방지 원칙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동아리·예술인·청년 참여 공모
✓ 시민기획 프로그램 비율 확대
• 축제 평가제 도입
✓ 방문객 수·지역경제 효과 분석, 시민 만족도 조사 의무화

▪ 시행시기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기존 축제 예산 통합 배분
▪ 재원조달 : 국비, 시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콘텐츠 공모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방문객 50만 명 이상 유치
외지 방문객 비율 30% 확대
행정비용 10~20% 절감
시민 만족도 80% 이상 달성

2) 예술인 지원사업 개선

의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은 그동안 '지원 확대'에 집중해 왔지만, 사업 구조는 목적과 대상이 뒤섞인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업 예술인과 취미·생활문화 예술인이 같은 트랙에서 경쟁하면, 전문창작은 약해지고 생활문화는 정체성을 잃습니다.

지원을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업예술과 생활예술을 공정하게 분리해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늘리기보다 구조를 바꿔 성과를 내겠습니다.

전업예술·생활예술 2트랙 분리 운영

- 트랙 2원화(공고·심사·평가 분리)
  - ✓ '전업 예술 지원 트랙'과 '생활문화 지원 트랙' 분리 공고
  - ✓ 신청서·심사표·평가지표 트랙별 별도 운영
- 지원 목적 재정의
  - ✓ 전업 트랙: 창작 지속·전문성 강화 중심
  - ✓ 생활 트랙: 참여 확대·공동체 확산 중심

전업 예술 지원 트랙 재설계

- 장기 프로젝트형 지원 도입
  - ✓ 6개월~1년 단위 창작·공연·전시 지원 신설
  - ✓ 단발성 결과물 중심 지원 비중 단계적 축소
  - ✓ 연습실·레지던시·기술스태프(무대·음향·조명) 지원 확대
- 예술활동증명 연계 기준 마련
  -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참여 비율 기준 적용
  - ✓ 최근 활동실적(공연·전시·발표) 가산점 반영
  - ✓ 청년·신진은 별도 트랙 또는 가점으로 진입장벽 완화
- 중복 참여 기준 합리화
  - ✓ 동일 콘텐츠 반복 수혜 제한, 상이 프로젝트는 참여 허용
  - ✓ 후속 단계 지원(쇼케이스→본공연) 연계형 설계
- 연간 지속활동 보장(소규모 정기활동)
  - ✓ 소규모 정기공연·정기전시 지원 신설
  - ✓ 지역 순회·생활권 공연 인센티브 부여
  - ✓ 장기 창작자 육성(멘토링·제작·유통) 패키지 운영

생활문화 지원 트랙 정비

- 동아리·주민예술 중심 지원 강화
  - ✓ 동 단위 발표회·생활권 공연 확대
  - ✓ 공공시설(도서관·주민센터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생활문화 네트워크(동아리 연합) 지원
- 참여·확산 중심 평가체계 전환
  - ✓ 참여자 수·접근성·확산성 중심 배점 적용
  - ✓ 경쟁형 창작평가 최소화, 공동체 기여 항목 강화
  - ✓ 아동·청소년·시니어·장애인 참여 가점 부여
- 생활문화 정체성 보호
  - ✓ 생활 트랙은 전문성과 무관한 참여형 기준 적용
  - ✓ 전업예술팀의 생활 트랙 쏠림 방지 장치 마련
  - ✓ 생활문화 지도자·퍼실리테이터 양성 연계

공정성·투명성 강화

- 심사기준·배점표 공개 의무화
  - ✓ 트랙별 심사기준 사전 공개, 선정 사유 요약 공개
- 결산 공개 및 시민 평가제 도입
  - ✓ 사업별 집행·성과 요약 공개, 시민 만족도·개선의견 상시 수렴
  - ✓ 성과평가(전업/생활) 이원화 운영

추진 방법

- 전담 TF 구성
  - ✓ 문화정책과·문화재단 중심 TF 구성
  - ✓ 전업·생활 분류 기준 마련 및 운영지침 정비
  - ✓ 2026년 공모사업부터 트랙 분리 공고 적용
- 기존 예산 범위 내 구조개편
  - ✓ 기존 문화예술 지원 예산 범위 내 재배치
  - ✓ 효과 낮은 사업 정리, 핵심 사업 집중 편성

- 이행시기 : 2027년~2030년
- 사업예산 : 비예산
- 우선순위 : 2순위
- 제도근거 :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 또는 운영지침 보완
- 사업목표 : 트랙 분리 공고 100%
  심사기준 공개 100%
  결산·성과 공개 연 1회 이상
  생활문화 동 단위 프로그램 확대

3) 경기북부 스포츠마케팅 거점 조성

의정부는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 접근성, 반환공여지의 넓은 부지, 군부대 유휴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확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생활체육 중심에 머물러 있어 산업화·관광화 전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의정부를 스포츠+산업+관광이 결합된 경기 북부 스포츠마케팅 거점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산업을 만들고 관광을 유치하며 세대를 통합하는 도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스포츠잔디 산업 테스트베드 유치
- 국내외 스포츠용 잔디 기술 실증단지 조성
- 천연잔디·하이브리드잔디·친환경 인조잔디 비교 테스트베드 운영
- 스포츠잔디 기술센터 설립(품질검증·교육·연구 기능)
- 잔디생육 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스포츠용 천연잔디 전문 생산단지 조성
- 경기 북부권 잔디 전문 생산단지 구축
- 잔디 재배 스마트팜 보급
- 임대형 천연잔디 수직농장 모델 개발
- 프로구단·학교·동호회 대상 잔디 공급망 구축

동별 천연잔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 동별 소규모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 파크골프장 단계적 확대
- 잔디 캠핑장·스포츠 피크닉존 조성
- 야간조명·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

세대통합형 파크골프 특화도시 전략
- 세대융합 리그전(청소년 VS 시니어) 개최
- 수도권 파크골프 동호인 전국대회 유치
- 관광형 파크골프 패키지 개발
- 지역상권·전통시장 연계 스포츠관광 상품화

스포츠 전지훈련·스포츠관광 마케팅

- 수도권 및 해외 전지훈련 유치 전담팀 운영
- 프로·실업팀·유소년팀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 반환공여지 활용 대형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 스포츠+문화 복합 이벤트 추진

스포츠 데이터·콘텐츠 산업 육성
- 스포츠 경기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 AI 기반 선수훈련 데이터 솔루션 개발
- 스포츠 유튜브·콘텐츠 제작 지원
- e-스포츠 연계 복합경기장 검토

스포츠산업 창업·청년일자리 확대
- 스포츠창업 지원센터 설립
- 잔디관리·스포츠장비·스포츠테크 스타트업 육성
- 스포츠 코디네이터·트레이너 양성 과정 운영
- 스포츠 이벤트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이행기간 : 2027~2035년
- 사업예산 : 1,00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참여
  스포츠기업 사회공헌 유치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스포츠관광객 연 100만명 유치
  스포츠 관련 일자리 3,000개 창출
  스포츠산업 매출 2,000억원 규모 육성
  세대융합 리그 50개 팀 운영

4) 스포츠·문화·치유 융합관광 개발

의정부는 부대찌개, 미군기지, 도봉산, 중랑천, 사찰과 수목원 등 서로 다른 자산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각이 따로 홍보되고, 따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이제 의정부의 상징인 '부대찌개'의 융합성을 도시 전략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군(軍)·청년·음식·예술·스포츠·치유를 결합한 융합관광 브랜드 '부대찌개 융합관광'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대찌게 융합관광」 브랜드 개발
- 부대찌개의 '섞임·융합' 철학을 관광 브랜드로 재해석
- 스포츠·문화·치유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
- 통합 BI·브랜드 디자인 개발
- 도시 전역을 '융합 관광 루트'로 연결

OTA·FIT 기반 디지털 관광 전략
-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입점 및 글로벌 홍보
- FIT(개별 자유여행객) 맞춤 코스 개발
- 인플루언서·유튜브 연계 콘텐츠 제작
- AI 기반 관광코스 추천 시스템 도입

스포츠 융합 관광
- 도봉산·중랑천 트레킹·러닝 코스 브랜드화
- 군부대 반환공여지 활용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 청년·군인 대상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파크골프·빙상·생활체육 연계 체류형 상품 개발

문화·예술 융합 콘텐츠 (핵심)
- 주요 명소 안내문을 음악·시·그림·미디어아트로 재해석
- 단순 설명 대신 감성형 예술 안내판 설치
- 청년 예술가 공모전 통한 작품 제작
- AR·QR코드 연계 오디오 스토리 제공
- '의정부 예술 안내문 프로젝트' 상설화

참여형 관광 아카이브 구축
- 관람객 소감·영상·사진 업로드 플랫폼 운영

- 다른 방문객이 구독·공유 가능한 구조
- 시민·청년이 도시 스토리 제작에 참여
- 인기 콘텐츠 제작자 인센티브 제공

사찰·명상·치유 관광 확대
- 명상·치유센터 확충
- 수목원·도봉산 연계 힐링 코스 운영
- 장암 수목원 청년 산림놀이터 조성
- 산림치유·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군문화 관광 특화
- 미군기지 역사 스토리텔링 코스 개발
- 군악대·청년밴드 공연 연계
- 부대찌개 축제와 스포츠 이벤트 결합
- 군문화 박물관·체험관 검토

청년·군인 문화콘텐츠 특화지구
- 청년 예술가 거리공연 상설화
- 스트리트아트·힙합·댄스 페스티벌 개최
- 청년 창작공간·스튜디오 지원
- 군인·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야간관광 및 빛의 루트 조성
- 중랑천·역세권 야간 조명 관광 코스
- 미디어파사드·빛 예술 프로젝트
- 야간 러닝·야간 마켓 결합

- 이행기간 : 2027~2035년
- 사업예산 : 200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관광진흥기금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체류형 관광객 50% 증가
  연간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청년 문화일자리 2,000개
  관광매출 1,000억 원 달성

5)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의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지만,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돌봄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반면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예술교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방과 후·주말에는 상당 부분 유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단순한 교육공간이 아니라 마을 생활SOC 허브로 전환하여, 학생의 안전과 수업권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건강권·문화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를 '마을 생활SOC 허브'로 전환
- 체육관·운동장·수영장·도서관·예술교실 단계적 전면 개방
- 방과 후·주말·방학 기간 활용 극대화
- 평생학습·생활체육·문화프로그램 연계 운영
- 돌봄·노인체육·청소년 동아리 공간으로 복합 활용

학생 안전과 주민 이용의 동시 달성
- 학생 동선과 주민 동선 물리적 완전 분리
- 스마트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 CCTV·AI 안전관제 연계
- 시설 이용자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 통합 안전 매뉴얼 표준화

교원·학교 부담 제로화 구조 확립
- 학교장은 '개방 허가'만 담당
- 운영·관리·청소·보안은 지자체·교육청 전담
- 전문 위탁기관 운영체계 도입
- 시설개방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의정부 열린학교 365 특별조례」 제정
- 기존 학교시설 개방 조례 전면 업그레이드
- 안전사고·시설훼손 최종 책임 주체를 교육청·지자체로 명확화
- 학교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학교에 교육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학교-지자체-주민자치 3자 운영협약 의무화

- 시설개방 시간·범위 명문화
- 운영·청소·보안 담당 명확화
- 수익 발생 시 배분 구조 투명화
- 주민자치회·체육회·문화재단 참여 구조 설계

스마트 예약·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통합예약 플랫폼 운영
- 실시간 이용현황 공개
- 이용요금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 세대통합 리그 운영
- 청소년-어르신 공동 체육 프로그램
- 주말 가족 스포츠데이 운영
- 마을 영화상영·북토크·예술교실 운영

저소득층·취약계층 우선 이용권 보장
- 무료·감면 이용 제도 확대
- 장애인·고령자 전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연계 프로그램 제공

지역상권 연계 모델 구축
- 학교시설 이용객과 지역상권 연계 할인제도
- 체육대회·행사 시 지역 상인 참여
- 지역푸드트럭·마을기업 참여 허용

- 이행기간 : 2027~2030년
- 사업예산 : 20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교육청 협력예산, 생활SOC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개방학교 100% 참여 달성
  생활체육 참여율 30% 증가
  유휴공간 활용률 70% 이상 확대
  주민 만족도 90% 이상

바. 환경·안전

1) 플러스에너지도시 기본계획 실천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기업 중심 발전사업에서 주민 참여·공동소유·이익공유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플러스 에너지 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도시 기본전략 수립
- 2035년까지 도시 전체 에너지 자립률 50% 목표
- 공공건물 에너지 자립 100% 달성 로드맵 수립
- 전력생산·저장·거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과 산업전략을 연계한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공동소유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 마을단위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발전사업 최소 20% 이상 주민지분 참여 의무화 조례 제정
- 발전 수익 배당금 지역환원 구조 설계
-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기금으로 일부 적립

반환공여지 ESS & Recycling 특화단지 조성
-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ESS 집적단지 구축
-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유치
- 에너지 저장·재생·재활용 삼각산업벨트 구축
- 관련 기업 유치 및 청년일자리 창출

전력주도형 기업유치 전략 수립
- RE100 대응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 산업단지 내 태양광·수소·ESS 결합 모델 도입
- 친환경 기업 대상 전력장기계약(PPA) 지원
- 전력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의정부시 에너지센터 설립
- 에너지 창업·기술 실증·교육 기능 통합
- 시민 에너지상담·효율진단 지원

- 청년 에너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 기후기금·녹색금융 연계 플랫폼 운영

녹색교통·에너지 복지 확대

- 전기차·자전거 이용 시민 인센티브 제공
- 대중교통·전기버스 확대
- 저소득층 무상전기·에너지 바우처 확대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 이행기간 : 2027~2035년
▪ 사업예산 : 2500억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녹색기후기금, ESG 금융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500MW 확보
주민참여 발전사업 30% 달성
청년 에너지 일자리 3,000개 창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30% 경감

2) 의정부 생태하천 리빙로드 조성

의정부는 중랑천·부용천·백석천·회룡천·민락천 등 여러 하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변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천은 접근이 불편하고, 산책로가 단절되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오래 머물기 어려운 '통과형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GTX-C 개통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 변화가 본격화될수록, 의정부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친수 여가 공간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나는 의정부의 주요 하천을 단순 산책로가 아니라 "머물고, 걷고,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체류형 수변생활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천을 시민 일상의 운동·힐링·문화 플랫폼으로 재구성해, 서울 출퇴근 중심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넘어 '삶의 질이 높은 의정부'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설계단 운영
- 시민설계단 구성으로 구간별 우선순위·시설 구성 직접 참여 설계
- 한강유역청·환경부 협업으로 하천정비계획과 통합 추진

도보형 '물길산책로(워터패스)' 시범 조성
- 발목 깊이 얕은 물길을 맨발로 걷는 수중산책로 조성
- 여름철 물놀이·족욕 효과를 겸한 계절형 수변 인프라 구축
- 미끄럼방지 포장·야간 조명·안전난간 등 안전설계 표준화
- CCTV·비상벨·관리동선 확보로 야간 안전성 강화

포켓쉼터·물멍 테라스·반려쉼터 설치
- 그늘쉼터·그물해먹·미스트 존 등 체류형 휴식시설 확충
- 야경 테라스·데크 쉼터로 '물멍' 가능한 정주형 공간 확보
- 반려동물 동선 분리형 반려쉼터 설치 및 기본편의 제공
- 물소리 ASMR존·플로팅 데크형 휴식공간 등 특화 콘텐츠 도입

하천 연계 문화·여가 존(테마형 구간) 구성
- 버스킹·플리마켓·야외전시 가능한 광장형 구간 확보
- 하천별 특화 구간 조성
  ✓ 중랑천 미디어아트존, 부용천 패밀리놀이터존, 회룡천 힐링존 특화

- 하천 상단 고가 하부공간 리노베이션으로 예술 아치존 조성
- 하천-주변 상권-생활권을 잇는 '리빙로드' 연결 동선 정비

스마트 생태네비·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 코스 추천·거리 알림·안전 안내 제공, 하천 전용 안내체계 구축
- 걷기·참여 실적 기반 마일리지 적립 및 지역화폐 연계
- 탄소절감 효과 시각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환경교육 효과 확보
- 소상공인 쿠폰·할인과 연계해 '그린경제 플랫폼'으로 확장

단계별 하천별 특화존 조성

- 1단계(2026~2027) 중랑천~부용천 연결 구간 시범 조성
- 2단계(2027~2028) 회룡천~백석천~민락천 확장

- 예정위치 : 중랑천·부용천·회룡천·백석천·민락천 주요 구간(1단계 시범구간 우선)
- 사업예산 : 41억 원
- 이행기간 : 2027~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한강유역청 하천정비·친수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물길산책로 1개소 조성
  포켓쉼터·테라스 20개소 설치
  하천 테마존 5개 조성
  마일리지 앱 1식 구축
  연간 하천 이용자 20% 증가

3) 기후 취약계층 무상전기 제공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폭염·혹한은 더 잦고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장애인·영유아 가구·저소득 1인가구에 집중됩니다. 냉난방을 포기하는 순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에너지빈곤은 곧 안전의 문제로 바뀝니다. 단기성 현금지원만으로는 반복되는 위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구조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게는 혹서·혹한기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의정부 전역의 공공·민간 생활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중심의 분산형 발전을 확대하고, 시민이 출자·배당받는 에너지협동조합을 결합해 '주민이 주주가 되는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성과를 기후 취약계층의 무상전기로 연결해, 에너지빈곤을 구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도시 전역 생활공간형 태양광 확대

- 공공시설(시청·복지관·학교·체육관)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도로·주차장·공원·버스정류장 등 생활공간 태양광 확산
- 창호·기와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실증·보급 확대
- 가로등·보안등을 태양광 독립형 시스템으로 단계 전환

주택발전소 보급 및 자가발전형 가구 확대

- 신축·리모델링 시 '주택발전소'형 설계 유도
  - ✓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인센티브 지급
-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자가발전형 가구 확대 지원
-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판매로 "가계부담 절감+수익" 구조 마련
- 취약가구 우선 보급으로 장기 전기요금 부담 감소 기반 구축

반환공여지·구훈련장 등 유휴부지 활용 대규모 발전 추진

- 반환공여지·예비군 훈련장·대규모 유휴부지 태양광 집적단지
- 에너지자립타운 조성
  - ✓ 발전+체험+교육+연구 기능 결합

-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소득화' 모델 도입
- 발전-저장-공급을 연계한 분산형 전력 운영 모델 구축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 시민 출자 기반 '의정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태양광 설치→전기 생산→전기요금 절감+수익 배당 구조 정착
- 최소 지분 주민참여 원칙과 배당·기금 적립 규정 마련
- 취약계층 무상전기 재원, '에너지복지기금' 자동 적립 구조 설계

기후 취약계층 무상전기 지원
- 폭염기·혹한기 전기요금 전액 면제(우선구간) 및 단계 확대
- 노인·장애인·영유아 가구, 소형태양광·보조냉난방기·배터리 설치
-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실시간 모니터링
- 냉난방 포기가구 '제로' 목표, 긴급지원-설비지원-모니터링 연동

에너지전환 거버넌스·관제체계 구축
- 에너지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설치의무·수익공유제 조례화
- GH·LH·한전·에너지공기업·시민단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대학·기술기관 연계 BIPV R&D 및 실증(도시형 모델)
- 에너지통합관제센터 설립
  ✓ 생산·저장·분배·판매·우선공급 통합관리

- 예정위치 : 의정부 전역
  (공공시설 옥상·도로/주차장 등 생활공간 +
  반환공여지·구 훈련장 등 유휴부지 + 취약가구 주택)
- 사업예산 : 90억 원
- 이행기간 : 2027~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필요 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경기도 보조금, 공공부지 태양광 보급 연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연계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2035년 전력 자립률 50% 달성 기반 구축
  전 시민 연평균 전기요금 30% 절감
  혹서·혹한 취약계층 전기요금 제로 실현

4) 어르신 폭염·한파 안심돌봄

의정부는 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과 저체온 위험군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특히 1인 가구 어르신은 이상 징후를 스스로 감지하거나 주변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동안은 냉방비·난방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이 높은 가구가 누구인지 충분히 선별하지 못한 채 예산을 동일하게 배분하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선별·예측·대응·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르신 폭염·한파 스마트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IoT 스마트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

- 실내 온·습도 센서 설치
  - ✓ 실시간 온·습도 측정
  - ✓ 기준치 초과 시 자동 알림
  - ✓ 카메라 없는 비침습 방식 적용
-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 ✓ 활동 패턴 기반 이상 징후 탐지
  - ✓ 장시간 무활동 시 경보 발생
  - ✓ 단순 센서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 긴급 버튼 시스템 도입
  - ✓ 위급 시 즉시 호출
  - ✓ 119 및 통합관제 연계
  - ✓ 보호자 알림 연동

데이터 기반 위험가구 선별·맞춤 지원

- 위험 기준 자동 감지 체계
  - ✓ 폭염(예: 28℃ 이상)·한파(예: 12℃ 이하) 지속 시 자동 경보
  - ✓ 야간·새벽 취약 시간대 가중치 적용
  - ✓ 중복 위험(질환·독거·주거취약) 우선 분류
- AI 기반 고위험군 사전 분류
  - ✓ 기초수급·차상위·독거·만성질환·장애 등 위험요인 결합

✓ 과거 응급 이력·재입원 이력 연계(가능 범위 내)
✓ '무조건 지급'에서 '필요 가구 집중 지원'으로 전환

• 맞춤형 긴급지원 연계
✓ 냉난방비 긴급 지원
✓ 현장 방문 점검 연계
✓ 냉방기·난방기 점검·교체 연계(필요 가구)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

• 통합관제 연계 모니터링
✓ 시 통합관제센터(또는 돌봄관제) 연계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확인 절차 가동
✓ 야간·휴일 대응 프로토콜 마련

•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 표준화
✓ 1단계 : 자동 알림 → 확인 전화
✓ 2단계 : 미응답 → 생활지원사·읍면동 출동
✓ 3단계 : 고위험 판단 → 119 연계 및 보호자 통보

• 보호자 안심 서비스 제공
✓ 보호자 앱·문자 알림 연동
✓ 주 1회 리포트 제공(선택형)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서·생활 돌봄 병행 강화

• 폭염·한파 특보 시 안부 체계 강화
✓ 평시 주 1회 안부 확인 → 특보 시 매일 점검 체계
✓ 고위험군은 방문 점검 우선 배치
✓ 응급연계 가능한 연락망 상시 업데이트

• 무더위·한파 쉼터 연계
✓ 쉼터 위치·운영시간 안내
✓ 이동 지원 연계(동행·차량)
✓ 쉼터 IoT 연계 운영(혼잡·온도 관리)

• 방문간호사·생활지원사 연계
✓ 건강징후 점검(혈압·탈수 위험 등)
✓ 복약·식사·수분섭취 지도
✓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단계별 추진 계획

• 1단계(2026년 하반기) : 시범사업
✓ 폭염·한파 취약 고령층 500가구 시범 설치
✓ 무더위쉼터·한파쉼터 IoT 연계 테스트

✓ 대응 프로토콜·관제 운영모델 확정

- 2단계(2027~2028년) : 확대 적용
  ✓ 3,000가구로 확대
  ✓ 데이터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
  ✓ 복지관·보건소·읍면동 연계 강화
- 3단계(2029년 이후) : 전면 시행
  ✓ 신청 고령층 전원 대상 확대
  ✓ AI 예측 기반 사전 위험관리 정착
  ✓ 예산 구조 전환(일괄지원 일부 → 스마트케어 중심)

▪ 이행시기 : 2027~2029년
▪ 사업예산 : 50억 원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재난안전특교세 활용
기존 냉난방비 예산 일부 구조 전환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고위험군 조기경보 체계 구축
24시간 대응 프로토콜 정착
선별지원 전환으로 예산 효율화

5) 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강화

의정부는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공사현장, 물류시설 등에서 추락·끼임·협착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책임은 강화되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입니다. 산재 발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도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법령 이해도와 예방 교육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정부형 '산재예방 지역협의체'와 '이동형 위험성 평가팀'을 구성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동형 위험성 평가 컨설팅팀 운영
-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연간 방문 점검
- 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2~4인 1조 구성
- 위험성 평가서 작성 지원
- 3개월 내 재점검 및 개선 이행 확인
- 점검 결과 온라인 플랫폼 공개

노무사·산업안전전문가 지역협의체 구성
- 의정부 거주·활동 전문가 40명 내외 참여
- 월 1회 이상 회의 및 현장 실태 공유
- 공동 예방교육 실시, 우수 사업장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협의체 활동 정기 보고·공개

사고 빈도 기반 맞춤형 규제·지원 체계
- 최근 2년 내 사고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

- 재해 고위험 업종 정밀 관리
- 개선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표창·홍보·보험료 감면 연계 검토)
- 산재 미발생 모범사업장 인증제 도입

온라인 산재예방 통합 플랫폼 구축
- 사업장 안전 자가진단 시스템 제공
- 표준 매뉴얼·교육영상 상시 제공
- 점검·개선 이력 데이터 축적
- 근로자·관리자 열람 가능 구조

- 예정위치 : 의정부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전반
- 사업예산 : 9억 원 내외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연 500개 사업장 방문 점검
  중대재해 3년 내 30% 감소
  안전교육 1,000명 참여
  모범사업장 50개소 인증

3
4개 권역별 지역 공약

가. 송산권 : 미래산업과 육아의 중심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테크 시티"

"미래 세대의 표준, 스마트 육아와 첨단 일자리의 공존"

1) 송산1동 : "생활행정 파트너, 청년의 활력"

용현 청년 창업 AI 클러스터 조성
- 용현산단 복합문화센터 증축,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전환
- (구)306보충대 부지, 단순 주거지에서 자족형 테크노밸리로 개발

용현산단 청년 AI 스타트업 밸리 조성
- 용현산단을 피지컬 AI 의료기기 제조 거점으로 전환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확충

용현 공공주택지구 '청년 만원주택' 우선 공급
- 역세권 인근에 월 1만 원 임대료의 청년 주택 공급
- 의정부 진입 청년의 정주 환경 혁신

10급 시민공무원 '생활행정 파트너' 운영
- 퇴직자 및 경력단절자를 파트너로 위촉
- 넓은 관할 면적의 행정 사각지대 해소

부용천 스마트 리빙로드 조성
- 부용천 산책로에 도보형 맨발 물길 산책로 조성
- 디지털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2) 송산2동 : "내 집 앞이 정원, 쉼이 있는 일상"

민락천변 녹지대와 수변공원 정비
- 청년들이 버스킹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관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민락천 수변공원 '물멍 테라스' 조성

• 민락천변 녹지대에 그물해먹 설치
• 미스트 분사존 등 청년 감성 쉼터 설치

의정부 건강급식센터 유치
• 초·중·고교생 대상 AI 맞춤형 건강급식 보급
•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1205번 광역버스 노선 안정화 및 직영제 검토
• 출퇴근 시간 단축 및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목표
• 시가 배차 권한을 갖는 교통 체계 마련

장애인 청년 맞춤형 '스포츠 바우처' 지급
• 관내 장애인 복지 인프라와 연계
• 1인 1스포츠 활동비 지원

3) 송산3동 : "아이 키우기 좋은 1등 교육"

24시간 공공 어린이 병원 및 돌봄 체계 강화
• 맞벌이 청년 부부의 의정부 정착 지원
• 야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의료 인프라 확충

민락 맥주축제 등 청년 중심의 상권 브랜딩 강화
• 민락 2지구 상권 'AI 상권 분석 플랫폼' 제공, 'U-AI' 구축
•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에게 상권 분석 서비스 제공

생활영어존(Living English Zone) 집중 설치
• 민락·고산의 공원과 도서관 연계
• 교육비 부담 없는 영어 학습 환경 조성

민락 국민체육센터 내 '스마트 스포츠 루프'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 전 세대가 즐기는 디지털 체육 공간 조성

4) 고산동 : "교육 불평등 해소, 연결된 신도시"

고산-민락-장암 '버스 직영제' 우선 도입
• 시 직영 노선 운영
• 신규 택지지구의 고질적 배차 문제 해소

법조타운 연계 '피지컬 AI 의료 실증단지'
- 법조타운 부지 개발 시 AI 재활·돌봄 거점센터 설립
- 캠프 스탠리 IT 캠퍼스 및 '정책 유보지' 확보
- 반환공여지 일부를 유보지로 설정, 미래 청년 정책 수요 대응

고산지구 맞춤형 '바톤터치 연결망'
-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실시간으로 연계
- 의정부역까지 이동 시간 단축

5) 자금동 : "의료와 생태가 만나는 웰니스 거점"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U-AI' 테스트베드화
- 대학병원 인근에 AI 기반 병상·인력 지원 시스템 도입
- 시민 의료복지 효율화 도모

자일동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태양광 발전 수익 활용
- 지역 기후 취약계층에게 전기 지원

금오 상생 페스타의 디지털 축제화
- 소상공인 상품권 수수료 인하
- AI 플랫폼을 통한 축제 정보 실시간 제공

현충탑 메모리얼파크 '랜드마크 시민광장' 연계
- 단순 추모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모이는 공공광장 조성
-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

나. 흥선권 :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심

"원도심의 힙한 변신"

"문화와 기회가 넘치는 생활권"

1) 의정부1동 : "랜드마크로 의정부의 활력을"

'GTX-C 역세권 청년 복합 스테이션' 구축
- 의정부역 앞 광장을 랜드마크 시민광장으로 재생
- 제일시장과 부대찌개 거리 등 노후 상권에 청년 상인 입주 지원

부대찌개 거리 '스마트 주차-상권 패키지'
- 주차장 정보 실시간 공개
- 방문객 편의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의정부역-행복로 '공중그린 데크 아치' 설치
- 단절된 보행로 연결
- 상권을 살리는 입체형 시민광장 조성

전통시장 '디지털 조달·물류 시스템' 도입
- 제일시장 등 노후 상권에 AI 기반 정보 개방
- 조달 투명성 강화

'청년 만원주택' 집중 공급
- 초역세권 500m 이내에 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거점 확보
- 의정부 진입 청년의 저렴한 주거복지 제공

2) 의정부2동 :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주권으로"

행정·예술 복합지구 조성
-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예술도로'를 조성
- 도로가 캠버스가 되고 예술 창작공간이 되는 거리 조성

시민주권예산제 '권역별 결산 토론회'

•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 우선순위 결정
• 정례적인 예산결산 토론회 운영

예술의 전당 연계 '예술가 참여 시민광장'
• 백석천 근린공원 일대에 예술가들의 작품 설치
• 유니버설 디자인 광장 조성

공공 복합청사 내 'AI 시민 비서 플랫폼' 쇼룸
• U-AI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고 민원 해결
• 지능형 행정 서비스 거점화

만원 청년주택 집중 공급
•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등 임차
• 청년에게 저렴하게 제공

3) 가능동 : "디자인과 교육으로 깨어나는 가능성"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청년 디자인 캠퍼스'
• 반환공여지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조성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자인 캠퍼스 운영

경민대 상권 '청년 상인 인큐베이팅' 추진
• 공실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임대 공간 제공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교외선 가능역 신설 및 '버스-철도 바톤터치'
• 철도 노선과 시내버스를 촘촘하게 연결
• 스마트 교통망 구축을 통한 이동 효율화

원도심 노후 주거지 '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전문가 지원
•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경감
• 전문가 자문 체계 운영

4) 흥선동 : "세대 공감, 함께 상생하는 마을"

구도심 '그린 리모델링' 및 에너지 자립 주택
• 노후 주택에 태양광 패널 보급
• 전기요금 없는 주거 환경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

어르신-청년 '세대 융합 스포츠 프로그램'
• 시니어 건강 바우처와 청년 체육 교실을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여성 안심귀갓길 '스마트 안전 네비'
• AI가 분석한 안전 경로를 제공
• 위기 시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흥선마을 '시민공무원' 커뮤니티 거점화
• 지역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모델 완성
• 시민공무원제 참여 시민 대상 교육 추진

5) 녹양동 : "활력 넘치는 시민 레포츠 타운"

'스포츠·레저 테마파크' 조성
• 기존 체육 시설 고도화
• 프로스포츠와 연계한 청년 창업 캠퍼스 설립 및 스타트업 지원

시민 레저 스포츠 타운 '1인 1스포츠 바우처'
• 빙상, 배구 등 우수 인프라 활용
• 의정부 시민들에게 운동 바우처 지급

녹양역-종합운동장 '친환경 스마트 셔틀'
• 경전철 지선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혁신
•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녹양천 생태하천 '리빙로드' 특화
• 하천변에 야외 체육기구와 노인용 운동존을 배치
• 도심형 스포츠 루프 구축

다. 호원권 : 관문도시와 생태의 조화

"서울 연결성 No.1, 청년 생태 주거지"

"의정부의 관문, 생태와 에너지가 숨쉬는 미래"

1) 호원1동 : "에너지 자립의 거점"

'캠프 잭슨 바이오·에너지 실증단지' 유치
- 서울 접경지의 이점을 살린 실증단지 유치 전략
-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 우선 추진

캠프 잭슨 '재생에너지 발전 클러스터'
- 유휴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추진
- 기후 취약계층 무상 전기 재원 마련

신한대 인근 '대학문화-영어거리' 조성
- 24시간 영어 접촉 환경 조성
- 청년 대학생 인력을 공공 영어 강사로 활용하는 문화거리 조성

호원나들목 조기 착공 및 '서울-의정부 단일요금'
- 광역 요금 체계 단일화
- 서울 출퇴근 청년의 교통비 부담 해소

예비군 훈련장 부지 '시민 참여형 설계'
- 공여지 시민설계단 운영
- 아이들이 즐기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2) 호원2동 : "수중산책로, 웰빙 라이프"

회룡천-중랑천 '워터패스(수중산책로)'
- 중랑천 벚꽃길과 연계해 맨발로 물속을 걷는 힐링 공간 마련
- 이른바 '물멍 테라스' 조성으로 웰빙 인프라 혁신

600 기무부대 이전지 '청년 스포츠 허브'화

-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스포츠 시설 확충
- 참여 데이터 기반 관리

반려인 쉼터 및 '하천 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 반려견과 산책 시 공익활동과 연계한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의 지역화폐 환급을 통한 그린 경제 플랫폼 도입

회룡역 역세권 '역세권 청년 만원주택'
- 철도역 인근 소형 주택 확보
- 생산 가능 인구의 유입 및 정착 유도

3) 장암동 : "생태 자산으로 여는 고품격 주거"

'피지컬 AI 의료 산업단지' 조성
- 7호선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활용
- 대학병원과 연계한 R&D 단지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장암수목원 조성과 연계한 '숲세권' 청년 만원 주택 조성
- 장암 수목원 연계 '탄소중립 실천 마일리지' 도입
- 수목원 이용객에게 앱 연동 마일리지 지급, 저탄소 생활 실천

장암역 노후화 개선 및 '바톤터치 광역 거점'
- 장암역 노후 역사 정비사업 추진
- 마을버스와 지하철이 즉각 연결되는 환승 체계 강화

공공하수처리장 '시민 정보공개 대시보드'
- 환경 시설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정보를 인포그래픽 공개
- 공공하수처리장의 환경친화적 관리에 대한 시민이해 촉진

라. 신곡권 : 행정 중심의 스마트시티

“행정과 소통의 중심”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시티”

1) 신곡1동 : “음악과 감성이 흐르는 신곡”

‘음악과 라이프가 있는 스마트 상권’ 조성
- 음악도서관을 거점으로 청년 문화 프로그램 상시화
- 상권의 디지털 전환(모바일 수수료 인하 등) 지원

음악도서관 거점 ‘영어문화 Day’ 개최
- 도서관 인프라 활용한 영어문화 Day운영
-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 및 문화 축제 운영

동오마을 상권 ‘AI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에게 유동인구 및 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제공
- 플랫폼 구축을 통한 AI맞춤형 마케팅 지원

아파트 밀집지역 ‘시민공무원 생활행정’
-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 네트워크 확대 시범 지역 지정
- 시민공무원에 의한 생활행정 지원 모델 개발

중랑천-부용천 합류부 ‘예술 아치존’ 조성
- 고가 하부 공간 리노베이션 추진
- 청년 예술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으로 활용

2) 신곡2동 : “데이터로 말하는 열린 시정”

북부청사 광장 ‘시민 참여 예산 주민투표제’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사업 대상, 주요 예산 투표 실시
-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광장민주주의 도입
- 북부청사 광장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

추동근린공원 '스마트 생태네비' 운영
- 공원 내 산책 코스를 추천
- 탄소 절감 효과를 안내하는 디지털 가이드 앱 운영

재개발 구역(장암2·6) '정보 오픈 API' 실시간 공개
- 공사 진행 상황, 예산 집행, 계약 이력 등 공개
-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는 개방하는 API 운영

어린이 전용극장 'AI 맞춤형 교육 콘텐츠'
-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AI 추천 교육 제공
-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

“의정부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30세 정진호가 패기있게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시의회와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장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하는 자리입니다.

정진호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노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정진호

“의정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30대 정진호가
시민만 바라보고 거침없이 일하겠습니다.
의정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시장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의정부 일하는 시장 직진 정진호가 일 하겠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는 진짜 젊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를 멈춰 세운 낡은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젊은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참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진 찍기 위한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미래로 곧장 달리는 진짜 직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행정은 늘 뒤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의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선도하겠습니다.

“직진 정진호 진짜 의정부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1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값 3000 원
03040
9 791196 367480
ISBN 979-11-963674-8-0

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 :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70,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출역 지식산업센터 B동 6층 70,71호 02-3141-4154